Weekly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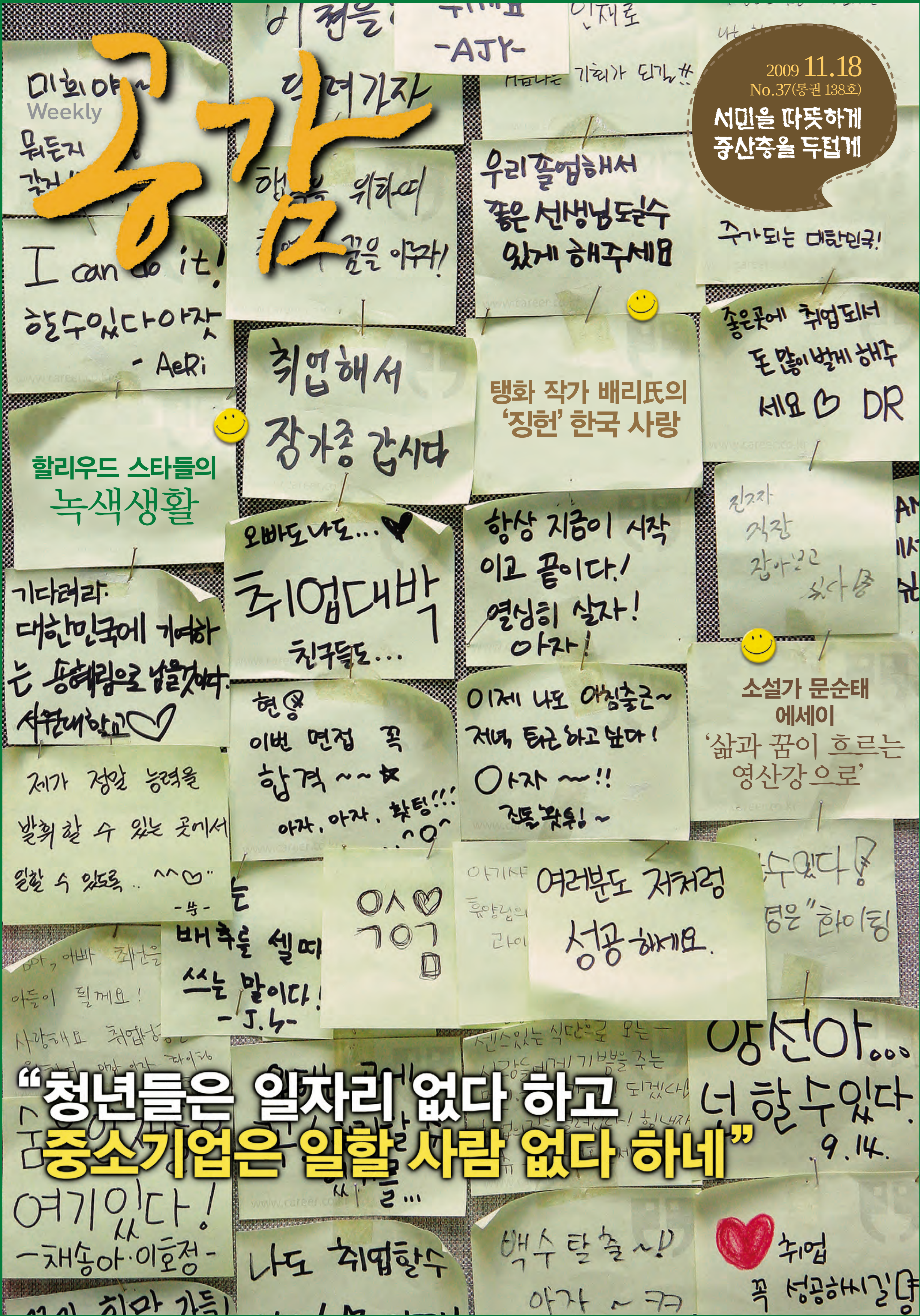
2009 11.18
No.37(통권 138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할리우드 스타들의
녹색생활

탱화 작가 배리氏의
'징헌' 한국 사랑

소설가 문순태
에세이
'삶과 꿈이 흐르는
영산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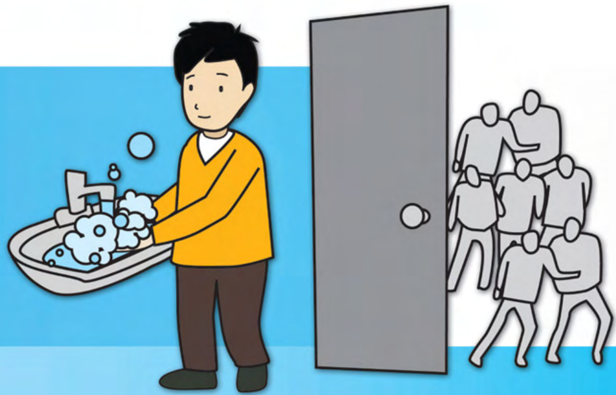
"청년들은 일자리 없다 하고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 없다 하네"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www.cdc.go.kr

함께 지켜주세요

우리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행동요령**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외출 후에도, 평소에도 손 씻기를 습관화해주세요.



에티켓도 잘 지키고!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면,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는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사람 많은 곳은 조심조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사람이 많은 장소는 되도록 피해주세요.



걱정없이 회복을!

신종인플루엔자는 가벼운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증의 건강한 사람은 항바이러스제 치료 없이 회복됩니다.



편히 쉬고, 많은 양의 수분을!

건강한 사람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진료를!

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 비만, 임산부나 노인 분들은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취업
中企·해외를 살펴보자



임태희 노동부 장관

최근 골드만삭스사가 "2050년에는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8만1천 달러에 이르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머무르고 있는 지금 실로 꿈같은 이야기다. 하지만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극빈국이었던 우리가 이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주관하는 나라로 발돋움하게 된 저력을 감안한다면 결코 허황된 낙관론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미래를 논할 때 중심에 서있는 주인공은 '청년'이다. 단군 이래 가장 정보통신 분야에 능하고 첨단산업에 눈과 귀가 활짝 열려 있는 그들. 그러나 이런 청년들이 요즘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바로 '일자리' 때문이다.

10여 년 전 심각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는 과거의 풍부한 일자리 시대를 마감하게 됐다. 또한 기업의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아웃소싱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었다. 그로 인해 대기업, 은행, 공공기관 등의 공채에 수만명의 청년들이 몰려든다. 이들은 취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점 관리, 해외연수, 자격증 취득, 공모전 입상 등 온갖 '스펙'을 쌓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렇듯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찾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는 제안을 하고 싶다. 중소기업에서 다양한 업무를 배우며 스스로를 성장시켜 보라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직장체험을 늘리고 있으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턴직 수료 후 정규직 채용 비율이 77퍼센트 수준에 이른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는 만큼 정부는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맞춤형 훈련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취업과 더불어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 '취업만이 살 길은 아니다. 이제는 창업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찾아야 하는 청년에게 창업은 큰 의미를 가진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업과 미래의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1인 창조기업'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소셜벤처(Social Venture)'의 설립을 적극 돕고 있다. 소셜벤처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이른바 '사회적기업'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인적 자본을 밑천으로 환경보호, 저소득층 지원 같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소셜벤처는 청년실업과 취업난의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해외로도 눈을 돌렸으면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인을 필요로 하는 틈새 직종을 공략하는 것도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청년들이 세계 곳곳에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자원봉사 등으로 다양한 기회를 살린다면 국제무대에서도 통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현명한 사람은 기회를 찾지 않고 기회를 창조한다"고 말했다. 시대 상황에 맞게 취업에 대한 청년들의 사고방식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때다.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꿈과 야망을 키워주는 것은 사회와 정부의 몫이다. 청년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한국이 초일류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는 모습을 그리며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희망 열차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G

이 주의 공감
Weekly_2009.11.18_No.37(통권 138호)

기획특집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복지다**

"국정의 최고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복지"라는 국정철학에 맞게
정부는 청년취업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으고 청년들도 다시 뛴다는
마음으로 현재의 취업난을 극복해야 할 때다.

일러스트 · 채홍석



20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10



48



54



Weekly 공감

발행일 2009.11.18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 〈Weekly 공감〉 36호(11월 11일자) '잠비아 소년의 코리안 드림' 기사와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공감과 격려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요즘 외고 문제를 비롯해 국내 교육계가 한창 시끄러운 때에 참 단비 같은 소식이다. 전직교사가 세운 조그만 학교지만 학교를 세운 뜻도 훌륭하고 전 세계의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이번처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참으로 훌륭하다. 정부는 이런 학교를 대폭 지원해 발전시키도록 하기 바란다." _ 김현수

"지리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님들이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_ okrtn79210

"처음엔 단순한 명예학생이나, 뭔가 특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기사를 읽었는데 참 훈훈한 이야기였습니다. 해당 고등학교가 무상 교육기관이라는 것도 놀랍고요. 해당 학생의 합격을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_ 이주석

●● 〈Weekly 공감〉 35호(11월 4일자) 기획특집 '디자인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와 관련해 독자분이 공감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디자인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에서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각 강별 설치보의 기본계획 개요와 보 디자인 조감도가 자세히 소개돼 있었다. 이를 통해 각 강의 개발 후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창한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취지에 걸맞게 진정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강으로 개발될 수 있기를 바란다." _ 김경섭

●● 신종플루가 여전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Weekly 공감〉은 매주 신종플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와 관련해 여러 독자들이 의견을 올렸습니다.

"어제 모 탤런트 아들이 신종플루 때문에 이틀 만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더 이상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걱정이네요." _ 두루누리

"요즘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 신종플루 문제가 모든 사람들의 하루 일과를 망쳐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신종플루가 독감이나 조류인플루엔자보다도 치사율이 분명 낮을 뿐 아니라 회복률도 좋다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왜 날마다 몇 명이 죽었느니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과 중소마트, 대중음식점 등 서민들의 삶과 연관된 곳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신종플루 보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_ 이현칠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생활습관을
바꾸면 지구가
건강해집니다



충성클럽 이용 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합니다. 페플라스틱 1킬로그램을 소각할 경우 2.8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빨래는 모아서 합니다. 주 1회 세탁기를 덜 쓰면 연간 22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알립니다

정부 블로그 5천만명 방문 기념 이벤트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방문자 숫자가 11월 5일로 5천만명을 넘어선 것을 기념해 정책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정부 블로그는 하루 평균 약 18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정부와 국민 사이에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　간 11월 3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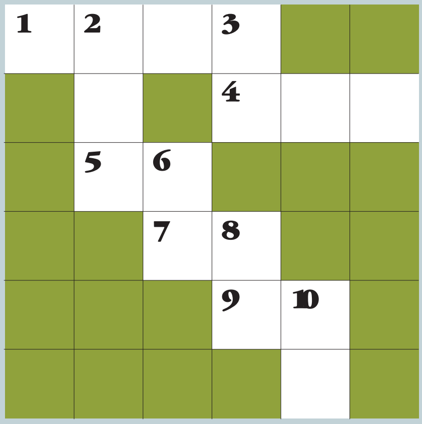
방　법 이벤트 페이지(blogquiz.korea.kr)에서 주간 단위로 제시되는 각 부처 '정책 퀴즈' 정답과 해당 블로그 URL을 복사해 입력
※ 퀴즈 예시 : 어려운 서민의 희망을 키워주는 통장은 □□□ 통장이다

시　상 3주 동안 가장 많은 수의 퀴즈에 응모한 분을 대상으로 추첨

상　품 **1등**(1명) 삼성 딥퍼플 넷북, **2등**(3명) 아이팟 터치 2세대, **3등**(6명) 닌텐도DS, **4등**(3백40명) USB, 친환경가방, 상품권 등

퀴즈 제출 부처
1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여성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3개)
2주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법무부, 법제처, 금융위원회,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13개)
3주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13개)

공감 퍼즐



빈칸의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11월 25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Weekly 공감〉 35호(11월 4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가로수 3 도안 6 중산층 7 주인공 9 경쟁력
세로 1 가을 2 수도 4 안중근 5 디자인 8 공경

〈Weekly 공감〉 35호 '공감 퍼즐' 당첨자

강동현(제주 제주시 일도동)
김현주(서울 광진구 구의동)
이정임(충북 제천시 청전동)
이종호(부산 북구 화명동)
조은정(인천 남동구 구월동)

가 로

1. 하룻밤을 묵고 이틀 간 여행하는 것을 일컫는 말. "강원도로 OOOO 여행을 다녀왔다."
4.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직업. 직장. 일터. "국정의 최고 목표는 OOO를 만드는 것이다."
5.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말하죠. "어서 빨리 경기가 완전히 OO되었으면 좋겠다."
7. 지지하여 도와주는 것. "청년취업을 위한 고용OO센터를 잘 이용해보세요."
9. 의견이나 사상 등을 열렬히 주장하여 불어넣음. 고무. "민족주의 사상을 OO하다."

세 로

2. 농업, 상업, 공업 등에 관한 온갖 물품을 전시해놓고 판매, 광고, 우열 심사 등을 하는 행사. 전람회.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 OOO가 열리고 있다는데 같이 가보지 않을래?"
3. 하루, 매일, 모든 일 등의 뜻. "OO 생활권"
6.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OO입니다."
8. 인쇄하거나 발표하기 위해 쓴 글이나 그림, 사진 따위. OO지.
10. 취직. 일자리를 구하는 것. "정부 OO 프로그램을 통해 OO에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독자 ♥ 공감

독자들의 단소리, 쓴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자 합니다. 이 코너에 참여를 원하시는 독자는 주소, 연락처와 함께 간단한 자기 소개의 글을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문완태(29) 씨는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지역 일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6년차 기자다. "취재할 때 〈Weekly 공감〉의 도움을 받게 되죠"라며 누구보다 열성 독자임을 자부했다.

● 〈Weekly 공감〉은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

취재차 들른 공보실에서 자주 보았습니다. 이게 뭐하는 잡지일까 싶어서 호기심에 보게 됐습니다. 산뜻한 표지, 짜임새 있는 구성이라서 당연히 시판하는 잡지일 줄 알았는데 뒷면에 가격이 없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 정책정보지였습니다.

● 〈Weekly 공감〉이 업무나 실생활에 도움이 된 적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요즘 초미의 관심사는 신종플루죠.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이나 입에서 입을 통해 퍼지는 소문들에 대해 이곳저곳에서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럴 때 〈Weekly 공감〉에서 읽은 정확한 이야기들을 자신 있게 설명해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근거 없는 괴소문들에 현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 불만사항은 없나요.

불만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양쪽 모두의 의견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Weekly 공감〉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내년이면 서른이 되는데 친구들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청년 백수'들이 많습니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대책이나 박람회 등과 같은 정보를 한 번에 모아 알려준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에게도 〈Weekly 공감〉을 꼭 찾아서 보라고 추천할 생각입니다.

공감 ♥ 마당

1. 가장 관심있게 읽은 기사와 이유
2. 이번 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유재범 서울 관악구 봉천동

1. '신종플루 걱정 말고 헌혈하세요'는 수혈을 통해서는 신종플루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학적 소견을 곁들여 설명해주었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헌혈을 기피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오해를 다소 풀어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 '숫자로 본 순항기 한국경제'는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회생 가능성을 높이며 선방하고 있는 한국경제를 객관화된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독자와 국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3. 위기의 농촌 살리기 해법으로 귀농정책을 많이 지원하고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자, 도시민들을 위해 현재 실행되고 앞으로 계획 중인 귀농 관련 지원정책들을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최기식 전북 남원시 향교동

1. 장기실종 어린이가 2백20여 명이라는 기사에 정말로 놀랐다. 2세 어린이는 7년이 지나 9세가 됐는가 하면 4세 어린이는 36년의 세월이 흘러 40세가 됐다. 지금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전단지를 뿌리며 찾아다니는 부모의 애타는 심정은 누구도 짐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서울지방경찰이 얼굴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해 현재 모습을 재현해 실종어린이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첨단과학의 힘으로 부모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2. '넘버원 코리아', 정말로 기분이 좋다. 지금 세계는 경제전쟁 중이다. 경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TV와 반도체 수출, 외환보유액 증가가 세계 1위다. 내놓고 자랑할 일이다. 비관에서 희망으로,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하강에서 상승으로, 적신호에서 청신호로 변한 한국경제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생산량을 늘리고 내수를 진작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국민 모두가 경제 역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3.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 갈등이 있는 문화, 경제, 정치, 사회 문제들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1월 18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공감마당에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는?
2. 이번 주 기획특집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복지다'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가을의 절정

우리 삶과 길은 서로 닮아 있습니다. 삶과 길은 계절 속에서 절정의 순간을 교차하기도 합니다. 절정의 가을, 전북 진안군 모래재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걷습니다.

모래재는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에서 진안으로 들어가는 길목, 10여 킬로미터에 걸쳐 구불구불하게 펼쳐진 가로수길입니다. 예전에는 전주에서 진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도로였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길이 생겨 예전처럼 붐비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에 선정되기도 한 이 고갯길은 11월 말까지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습니다. 늦가을 어느 날, 진안군의 명산 마이산을 둘러보고 저녁 무렵 이 고갯길을 거닐다가 근처 소양면 화심리에서 순두부를 드셔도 좋겠습니다.

글과 사진 · 정규남(사진가)



초중고 학생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 첫날인 11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상암동 상지초등학교를 찾아 접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사가 아플 것 같다는 아이들에게 "나도 내년 초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격려하며 이마에 손을 짚어 열을 재기도 하는 등 스스럼없이 어울렸다.

항바이러스제 800만명분 확보

이명박 대통령 서울 상지초등학교 방문… "내 순서는 내년 초"

11월 11일부터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A(H1N1·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4, 5주 안에 학생 대상 예방접종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예방주사가 주는 막연한 두려움에 잔뜩 찡그린 얼굴들, 하지만 주사를 맞은 다음 표정엔 안도감이 감돈다. 어린이 신종플루 환자들이 급증한 가운데 11월 11일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는 7백50만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당초 예방접종 일정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 시행된 이번 학교 예방접종 첫날에는 전국의 특수학교 76개교(1만2천1백68명)와 일반학교 4백14개교(20만1천78명)의 학생들이 예방접종 대상이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 1명, 간호사 2명, 행정요원 2명으로 구성된 접종팀을 9백70개 팀 이상 운영해 향후 4, 5주 안에 전국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인플루엔자 학교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생 중 약 92퍼센트(6백90만명)가 예방접종을 희망했고, 그중 99퍼센트는 학교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 예방접종이 끝나는 12월 중순 사전예약을 통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백신 비용을 제외한 접종비(약 1만5천원)는 개인 부담이다.

의료기관 등에서 신종플루 확진검사(RT-PCR)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의 경우 이미 면역체가 형성돼 있어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다. 단, 간이검사(신속항원검사)로 진단받은 경우나 확진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 학생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전한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동아DB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받고 있는 아이는 찡그린 표정이지만 부모는 안심이다.

예방접종 전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예방접종 전 학생의 건강상태와 과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 등을 기록한 '사전예진표'를 보호자가 작성하게 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당일 보건교사를 통한 체온측정과 예방접종 직전 의사의 최종 예진을 거쳐 안전하게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12월까지 백신 추가 입고… 백신 부족사태 없어"

정부는 학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대비해 '이상반응 관리반'을 전국 시도에서 운영하고, 적극적인 이상반응 모니터링과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 의거해 진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산하 방역대책본부는 11월 10일 현재 총 3백55만9천명분 정도의 항바이러스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1백55만9천명분(타미플루 83만6천명분, 리렌자 72만3천명분)이 비축 중이며 시도 보건소와 거점병원, 약국 등에 약 2백만명분 정도가 현재 유통되고 있다. 그간 시도 보건소와 거점병원, 약국 등에 3백41만명분이 분배돼 이 중 1백41만명분이 사용됐다.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전염병관리과장은 "11월과 12월 내 타미플루 5백49만명분, 리렌자 2백47만명분이 추가 입고될 예정"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같은 항바이러스제 부족사태는 없다"고 밝혔다. G

글 · 박경아 기자

학교에서 예방접종 할 때 주의 사항

- ✓ 예방접종은 몸이 건강할 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방접종 당일 몸이 불편한 학생은 접종을 연기한다.
- ✓ 예방접종 후 20~30분간은 교실 등에서 머물면서 이상반응이 생기는지 관찰한다.
- ✓ 학교접종 당일 몸이 불편해 접종받지 못한 학생은 보건소에 사전 연락을 하면 예약된 날에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 ✓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가 약간 붓거나 가려운 것은 문제가 없으나 심하게 가려운 경우 병원을 찾는다.
- ✓ 과거 계절독감 예방접종을 한 뒤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접종을 받지 말아야 한다.

자택 격리치료, 이것만은 조심!

대부분의 신종플루 환자들은 병원이 아니라 자택에서 치료하게 된다.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 5~7일이면 대부분 완치되지만, 이때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고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신종플루 환자 자택격리 지침을 알아보자.

- ▶ 신종플루 발병 후 7일간 집에서 치료한다. 어린이는 체온이 정상화된 후에도 하루 더 집에서 쉬며 경과를 지켜본다.
- ▶ 당뇨, 심장병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 다른 치료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 ▶ 간병인 외에는 환자 방 출입을 금하고 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 ▶ 가족 구성원 모두 손을 비누로 자주 씻고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간은 환기를 자주 한다.
- ▶ 환자는 반드시 코와 입을 가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도록 하며, 환자의 손은 비누로 자주 씻고, 특히 기침한 이후에는 반드시 씻는다.
- ▶ 환자가 사용한 1회용 마스크는 폐기하고, 천 마스크는 세제로 세탁해 사용한다.
- ▶ 환자의 식기와 천류는 분리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세제로 씻어 사용한다.
- ▶ 환자와 접촉하거나 환자가 사용한 휴지, 세탁물 등을 만졌을 경우 즉시 비누로 깨끗이 손을 씻는다.
- ▶ 가족 내의 다른 사람에게 신종플루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등)이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 의사와 상담하거나 보건소로 연락한다.
- ▶ 임신부는 신종플루 환자를 돌보지 않도록 한다.
- ▶ 이럴 때는 응급진료가 필요하다.
  - ① 건강한 성인의 경우 가슴 통증이 있거나 숨 쉬기 곤란할 때, 입술이 보라색 또는 청색으로 변할 때(청색증), 구토가 심할 때, 탈수 증상이나 발작이 있을 때, 평소보다 반응이 느리거나 정신이 혼미한 때
  - ② 소아의 경우 면역체계 관련 치료를 받거나 아세티살리실산(아스피린 등)을 정기 복용하거나 심폐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생후 3개월 미만이고 열이 있을 때, 호흡에 문제가 있을 때, 가슴 통증이 있거나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올 때, 사흘이 지났는데도 열이 내리지 않을 때, 청색증이나 경련이 있을 때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 11월 11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 전 열린 환영행사에서 어린이들의 인사에 화답하고 있다.

한·칠레, 한·페루 정상회담

칠레와 남극 개발… 페루와 FTA 추진

한국에서 가자면 비행시간만 20여 시간, 머나먼 남미의 칠레와 페루의 두 정상이 한국을 찾았다. 이제 와인으로 가까워진 칠레, 잉카의 후예들이 사는 페루의 두 정상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층 더 가까운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11월 11일 청와대에서 바첼레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주년을 맞아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FTA를 심화 발전시킬 것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두 정상의 회담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당초 예정보다 30분 넘긴 1시간 45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온 데 대해 만족을 표명했으며, 바첼레트 대통령도 최근 FTA로 다져온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음에 만족해했다.

이 대통령은 바첼레트 대통령에게 "에너지·자원, 인프라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대(對)칠레 진출 확대가 양국 모두에 실질적 이익이 되고 있다"며 칠레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물류기지센터 건립 등 남극 개발과 관련한 양해각서(MOU) 체결과 광업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희망했다.

양국 정상은 칠레 학생들의 한국 유학을 장려하기 위해 바첼레트 대통령의 방한 직전 체결한 '한·칠레 인적자원 개발교류 양해각서'를 환영하며, 2010년 칠레 독립 2백주년 기념사업에 우리 정부가 참여하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에 칠레가 참가

하는 등 상호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칠레는 구리, 리튬, 몰리브덴 등 주요 자원 부존국가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수산업, 정보기술(IT), 통신 등 산업 분야에서 중남미의 선진국가다. 칠레는 1949년 남미 국가 중 최초로 대한민국을 승인한 국가이기도 하며 양국 관계는 2004년 FTA 발효를 계기로 급속히 발전돼 왔다. 지난해 11월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양국 간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바첼레트 대통령의 방한으로 다시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양국 간 실질 협력관계가 다방면에서 한층 내실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바첼레트 대통령이 방한에 모친을 동행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어머니를 극진히 생각하시는 것 같다. 같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정상회담이 끝나고 가진 바첼레트 대통령의 이화여대 명예정치학박사 학위 수여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중남미의 첫 여성 대통령인 바첼레트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깨고 국민 통합과 포용의 정신으로 칠레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콜롬비아와 FTA 추진도

모친과 함께 고문의 고통을 이겨내며 칠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첼레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시장경제 원칙을 견지해 칠레를 남미의 강국으로 바꿔놓았다. 2010년 초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첼레트 대통령은 임기 말임에도 80퍼센트의 높은 지지율을 누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1월 12일 청와대에서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한·페루 FTA 체결 등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페루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진 양국 간 정상회담에 이은 가르시아 대통령의 방한으로 양국 간 실질 협력관계가 크게 증진됐다고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합의된 '포괄적 협력관계'의 진전이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하며, 특히 한·페루 FTA 체결 협상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가르시아 대통령은 한국의 대(對)페루 투자에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의 투자가 페루의 국가 발전, 특히 농촌지역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가르시아 대통령은 또한 페루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분야에 대한 한국의 투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한국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콜롬비아와도 FTA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페루, 콜롬비아와의 FTA 협상이 2010년까지는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오찬·만찬 함께 한 정상은 처음입니다"

"한국 너무 좋아"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 방한 일정 하루 연장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이 한국에 반해 방한 일정을 전격적으로 하루 더 연장했다. 국가 정상이 외국 방문 중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11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가르시아 대통령이 원래 11월 12일 저녁 7시 45분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하루를 더 묵고 13일 오전 출발한다"고 밝혔다.

가르시아 대통령은 당초 우리나라에서 1박2일 머문 뒤 11월 12일 저녁 열리는 제17차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로 떠날 예정이었다.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출국을 하루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가르시아 대통령은 "어제 저녁 한국에 도착해보니 정말 좋았다. 한강도 멋지다"면서 "한국 외교통상부에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하루 더 묵고 가겠다고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일정 연기에 따라 가르시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예정에 없던 11월 12일 저녁 만찬을 하고 다음 날 오전 싱가포르로 떠났다.

이 대통령은 가르시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하루 더 묵으시라"고 환영했으며 "아마도 한국을 방문한 정상 가운에 저와 오찬과 만찬 두 끼를 함께 하는 분은 가르시아 대통령이 처음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가르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일본, 중국 등 아시아의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과 모든 것을 먼저 하고 싶다. FTA도 마찬가지"라며 한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내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양국 간 FTA 타결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12일 국빈 방문한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페루 양국관계를 증진한 공로로 가르시아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다.

"세계경제 회복세 아시아 주도 출구전략에도 국제공조 필요"

글로벌 경제위기가 각국의 공조로 한 고비를 넘겼다. 이명박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출구전략 실시에도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연합

제1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1월 13일 오후 선텍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이후에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주요 20개국(G20)을 통한 긴밀한 국제공조가 지속돼야 한다."

11월 14, 1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개막 전날 열린 'APEC CEO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5백여 명이 참석한 이날 APEC CEO 서밋에서 이 대통령은 '위기 이후 아시아의 성장 전략-G20 프로세스 활용방안'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작년 페루 리마 APEC 정상회의 때만 하더라도 세계경제의 앞날이 막막했다. 그러나 현재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아시아가 주도하고 있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세 차례의 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세계 금융·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향후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실천해오고 있다"며 특히 출구전략에서의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따라 △출구전략 실시 시기는 개별국가의 사정에 따른다 △조급한 출구전략은 경기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출구전략 실시는 사전에 합의된 일반원칙에 기초한 국제공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이 세계경제 모델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은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G20가 전 세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는 기본 협력의 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PEC CEO 서밋을 마친 이 대통령은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다음 날인 11월 14일부터 이틀간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등 APEC 21개국 정상들이 '지속성장과 지역연계'를 주제로 논의했다.

"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위한 새 모델 있어야"

이 대통령은 첫날 열린 APEC 1차 정상회의에서 내년 6월 제4차 G20 정상회의 개최국인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와 함께 '위기 이후 아시아의 성장전략-위기 이후 세계경제 재편'이란 주제로 진행된 논의를 종합해 발표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대통령 등 APEC 정상들은 회담 이틀째 열린 2차 정상회의에서 지역연계를 의제로 '지역연계-자유무역과 열린 시장'에 대해 논의한 뒤 정상 선언문을 채택했다. G

글·박경아 기자

2012년까지 한국방문의 해

배용준 · 이병헌도 홍보대사로 나섰다

11월 11일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개막 행사가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영부인 김윤옥 여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해 한국방문의 해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

김윤옥 여사와 배용준 씨가 11월 1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한식 세계화 방안에 대해 환담하고 있다(위). 11월 11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한국방문의 해' 개막 행사에서 김윤옥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병헌 씨 등이 청계천을 걷고 있다.

'2010~2012 한국방문의 해'(이하 한국방문의 해)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기념 행사가 11월 11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한국방문의 해 D-50을 앞두고 펼쳐진 이 행사에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인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신동빈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 주한 외교사절단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은 2012년 외래 관광객 유치 1천만명, 관광수입 1백3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국의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통해 세계인들이 한국을 다시 찾고 싶은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범국가적 캠페인이다.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당신의 미소로 한국을 선물하세요' 라는 슬로건 아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디자인수도 서울, 여수세계박람회, 한류축제, 세계문화축제, 세계음식관광축제, 제주 올레트레킹대회 등 10대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김 여사, 유 장관, 배우 이병헌 씨가 함께 무대에 올라 한식의 맛과 멋, 추천하고 싶은 관광지에 대해 대화를 나눈 개막 축하 토크쇼다.

김윤옥 여사 "한식 등 우리 문화 외국인에 알리는 계기 될 것"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이자 한식세계화추진단 명예회장인 김 여사는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우리 음식, 한복, 한옥, 고궁 등 우리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방문의 해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여사는 인상 깊은 관광지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 학생들과 지난 6월 함께 걸었던 제주 올레길을 추천했다. 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낯선 곳을 여행한다는 느낌보다는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것처럼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을 맛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관광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할 신성장동력이자 아름다운 한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우리와 세계인이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고 언급하고, "청계천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거듭난 것처럼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이 우리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한국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무대에 선 이병헌 씨는 조만간 한국관광공사가 위촉하는 한국관광 홍보대사로 활약할 예정이다. 이 씨는 영화 〈길빌〉에 출연한 일본 여배우 구리야마 치아키와 함께 최근 한국 관광의 매력을 담은 홍보 영상에 출연하기도 했다.

한편 11월 10일 김 여사는 한식세계화추진위원이자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인 배우 배용준 씨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환담을 나눴다. 한식세계화추진단 명예회장인 김 여사는 11월 18, 1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 시 내놓을 한식 메뉴와 한식 세계화 방안에 대해 배 씨와 대화를 나눴다.

김 여사는 "한식은 메뉴가 많아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 한식의 메뉴 개발이 세계화의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다. 배 씨는 "김 여사께서 전통음식에 관심이 많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 같다. 웰빙 붐이 불고 있는 지금 한식은 경쟁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마이스터고 3.55 대 1 기대감 12개 자율형 공립고 내년 개교

자율적인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자율형 공립고와 산업현장의 특화된 전문교육을 통해 글로벌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마이스터고가 내년 3월 문을 연다. 최근 원서 접수를 마감한 마이스터고 21곳의 전체 평균 경쟁률은 3.55 대 1로 나타나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기대감을 엿보게 했다.



내년 3월 개교하는 마이스터고는 입학생 전원에게 소질과 적성을 살릴 기회와 함께 학비 전액 면제, 다양한 취업 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사진은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서울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사교육 열풍을 잠재울 대안으로 새롭게 도입된 자율형 공립고와 전문계 고교의 장점을 강화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마이스터고)가 뜨고 있다. 자율형 공립고는 자율적인 학교운영으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인성 및 진로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일반계 공립고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월 10일 올해 1단계 자율형 공립고를 선정해 발표했다. 내년 3월부터 운영되는 자율형 공립고는 서울 관악구 당곡고, 부산 북구 낙동고, 대구 동구 강동고, 광주 서구 상일여고, 충남 서산시 대산고, 경기 오산시 세마고 등 12개교다. 대부분이 일반계 공립고 가운데 교육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학교나 신설학교다.

이들 학교는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내 각 분야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자율형 공립고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들 학교가 자율적인 학교 운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간 2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율형 공립고 교장공모제 · 우수교원 100% 초빙 허용

자율형 공립고가 일반 공립고와 차별화된 점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공립고는 법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자율형 공립고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의 35퍼센트 범위 내에서 수업 시수 조정이 가능하다. 수업 일수도 일반 공립고는 2백20일을 채워야 하지만, 자율형 공립고는 최대 22일을 감축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을 선발할 때도 평준화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으로, 비평준화지역은 필기고사 없이 학교 자율로 뽑을 수 있다.

자율형 공립고는 교장공모제와 우수교원 초빙이 1백 퍼센트



서울 당곡고 등 자율형 공립고 12개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해 학업성취도와 공교육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교장도 공모제로 임용하고, 교원 임용과 배치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자율형 공립고가 개교하면 인성교육과 함께 공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성삼제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자율형 공립고의 도입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된 자율형 공립고는 이달부터 교장 공모를 시작해 12월까지 학생 선발을 완료하고, 내년 1월 교장·교원 연수 등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마이스터고는 글로벌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전문계고로, 입학생 전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 학비 전액 면제 혜택을 준다. 또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수기업에 취업하고, 해당 분야의 기술 명장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이스터고도 내년 3월에 일제히 문을 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마이스터고로 지정한 학교는 서울 수도전기공고와 미림여자정보과학고 등 21개교로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다.

마이스터고는 유망 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해 글로벌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전문계고로, 입학생 전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 학비 전액 면제 혜택을 준다. 또 모든 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방과후 활동 등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학생들이 부담하는 기숙사비는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10만원대다.

또한 마이스터고는 산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수기업에 취업하고, 해당 분야의 기술 명장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 개개인에게는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살리고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인 셈이다.

지난 10월 12일부터 학교별로 실시한 마이스터고 입학 전형이 11월 5일 모두 마감됐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총 3천6백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21개 마이스터고의 전체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서 3.55 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수원하이텍고와 충북반도체고는 5 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신입생을 선발한 서울 수도전기공고와 미림여자정보과학고의 경쟁률도 각각 3.37 대 1, 2.54 대 1을 기록하며 지난해 경쟁률을 훨씬 웃돌았다. 서울시교육청 공보관실 김승찬 장학사는 “마이스터고의 인기 상승은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결정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 같은 인기는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문계고 입학전형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스터고 전체 평균 경쟁률 3.55 대 1 기대감 높아

마이스터고는 졸업 후 성장 기반도 조성한다. 마이스터고를 졸업하면 협약기업체에 취업해 전공 분야의 산업현장에서 경력을 쌓게 되며, 남학생의 경우 취업하면 최대 4년간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또 입대해서는 관련 분야 특기병으로 복무함으로써 경력 단절을 막고, 제대 후에는 산업체로 복귀해 해당 분야의 마이스터(Meister·기술명장)로 성장하게 된다.

내년부터 마이스터고와 같은 전문계고를 졸업한 학생이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전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경로도 구축된다. 대학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성인 재직자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별도반(주말, 야간)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국립대 중에서는 공주대와 창원대가, 사립대 중에서는 중앙대, 건국대, 숙명여대 등 3개교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대 글로벌지식학부(서울캠퍼스, 안성캠퍼스)는 전문계고 졸업자를 위한 재직자 특별전형을 2010학년도부터 1백45명 규모로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김영곤 진로지도교육과장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성공적인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자율형 공립고

지역		학교명
서울	관악구	당곡고
	노원구	수락고
	강서구	등촌고
	중구	성동고
	도봉구	도봉고
부산	북구	낙동고
	사상구	사상고
대구	동구	강동고
	중구	경북여고
광주	서구	상일여고
충남	서산시	대산고
경기	오산시	세마고

마이스터고

지역	학교명	지역	학교명
서울	수도전기공고	강원	원주정보공고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충북	충북반도체고
부산	부산자동차고	충남	합덕제철고
	부산기계공고	전북	군산기계공고
대구	경북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인천	인천전자공고	전남	한국항만물류고
광주	광주정보고	경북	구미전자공고
대전	대전동아공고		금오공고
울산	울산정보통신고	경남	거제공고
경기	수원하이텍고		삼천포공고
	평택기계공고		

* 자율형 공립고 총 12개교, 마이스터고 총 21개교

"잊지 말자 1905 을사늑약… 도약하자 2010 G20 코리아"

11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이다. 동시에 1905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로 외교권을 박탈당했던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된 치욕의 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드높이고 선진 일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순국선열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지난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에 '대한민국 순국선열 · 애국지사 추모제전'에서 광복회원들이 묵념하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우리는 세계 질서를 이끄는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이 되었고, 내년에 첫 정례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됐다. G20 정상회의 유치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국운 상승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번영된 땅에서 복된 삶을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존립하기까지는 국내에서 또는 이국의 황량한 들판에서 항일 독립투쟁을 전개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생각해야 한다. 1백여 년 전 우리나라는 을사늑약(乙巳勒約)의 체결로 외교권조차 행사할 수 없었으며,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도 입장하지 못하는 처지였다.

11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이다. 동시에 이날은 1905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로 외교권을 박탈당했던 을사늑약이 체결된 치욕의 날이기도 하다. 일찍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39년 망국 조약인 을사늑약이 체결된 11월 17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정했다. 이는 망국의 치욕을 잊지 않고 순국선열의 희생 의미를 되새기며 조국 광복의 의지를 다지려는 큰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는 순국선열의 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과거 우리 민족이 국권을 빼앗기고 일제의 무단통치에 신음하고 있을 때 선열들께서는 국내외 광범위





지난해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순국선열 위패봉안관에
안치된 순국선열 한 분 한 분이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오른쪽).

한 지역에서 다각적인 방략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의병투쟁을 시작으로 3·1독립운동, 임시정부의 활동, 의열투쟁, 무장투쟁, 문화투쟁, 외교활동 등 조국 광복을 위해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끊임없이 투쟁했다.

일제에 맞서 항일투쟁 대열에서 산화하신 선열들의 순국정신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정신이며, 민족혼으로 승화되어 우리나라를 지켜낸 원동력이 됐다. 선열들이 목숨을 걸고 찾은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국제적인 위상도 매우 높아졌다. 1백여 년 전 외세에 흔들리고 나라마저 일제에 빼앗겼던 그 나약하고 힘없는 나라가 아니다.

**순국선열들의 값진 희생으로 오늘날 한국의 위상은 세계 속에 빛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존중받고, 사랑받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국가 품격에 걸맞은 역할을 해나가야겠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한다. 무엇보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뤄야 하며,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을 되살려 대한민국의 품격을 드높이고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진 일류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선열들이 이루려고 했던 조국의 진정한 자주독립 그리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꿈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후손들의 책무다. 새로운 도전에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높이 도약하고자 했던 우리 국민의 희망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을사늑약 체결된 11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된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의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핵심 의제를 주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된다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21세기 세계사를 주도하는 핵심국가가 될 것이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G20 정상회의가 소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 품격 또한 한층 드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훈정책에서도 국가 품격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꾸준히 펴나감으로써 국운 융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먼저 내년에 있을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유엔 참전국과의 미래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나갈 것이며, 참전해준 나라에 감사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나라로 국가 이미지를 높일 것이다.

또한 2010년에는 역사적 의미가 깊은 여러 기념일이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독립정신 계승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안중근 의사 순국 1백주년(3. 26)을 비롯해 4·19혁명 50주년(4. 19), 5·18민주화운동 30주년(5. 18), 경술국치 1백주년(8. 29), 청산리대첩 90주년(10. 21) 기념행사 등을 통해 역사를 기억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확산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가 발전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독립·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체험 교육과 국민 통합을 위한 국가 정체성 교육을 확대해나가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다.

순국선열들의 값진 희생으로 오늘날 한국의 위상은 세계 속에 빛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존중받고, 사랑받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국가 품격에 걸맞은 역할을 해나가야겠다.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이 더 큰 나라로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수 있도록 애국선열들의 순국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G

생활공감 국민행복

행정안전부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제 2 기 모집



주부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바꿉니다!

모 집	전국 10,000명 (시 · 도별 인원안배)
자 격	국민제안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고 국정 참여에 관심이 많은 20~50대 주부 여성으로서, - 정책 아이디어 제안, 워크샵 참석 등 모니터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 인터넷 및 컴퓨터 활용하여 기본적인 문서작성 가능자
활동내용	생활공감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국정과 지방행정 모니터링, 정부와 소통과 국정참여 등
활동기간	2010년 2월 ~ 2011년 1월
모집기간	2009년 11월 9일 (월) ~ 2009년 11월 30일 (월)
지원방법	OK주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주부모니터단 신청서 작성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적사항 (서식 참고) - 자기소개 : 생활공감정책 관심분야, 지원동기 작성
선발기준	지역, 연령, 직업, 경력, 자기소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 · 도에서 선정
인센티브	활동 마일리지 지급, 우수활동자 정부 포상 등
발 표	2009년 12월 7일(월) OK주민서비스 홈페이지(www.oklife.go.kr)에 공고 및 시도 홈페이지에 공고
문의처	- 각 시 · 도 자치행정과 (생활공감부서) - www.oklife.go.kr 게시판 - 행정안전부 생활공감기획단 (02)2100-3815, 3819, 3859, 1750,1759



동아DB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당분간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높다. 청년실업은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 "국정의 최고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복지"라는 국정철학에 맞게 정부는 청년취업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으고 청년들도 다시 뛴다는 마음으로 현재의 취업난을 극복해야 한다.

work.go.kr

"국정 최고 목표는 일자리 만드는 것"

전체 실업자 중 청년 총 50.9%… 정부 '일자리 프렌들리' 총력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복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청년실업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29일 젊은이들과의 만남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2일 정운찬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10월 29일 열린 '청년 취업, 젊은이와의 대화'에서도 "국정의 최고 목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실업문제, 특히 청년층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은행은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2.9퍼센트 늘었다고 발표했다. 성장률, 소비심리, 기업경기 등 최근 발표되는 각종 경제지표들을 보면 우리 경제는 위기를 딛고 확연하게 회복 중이다. 하지만 일자리만큼은 예외적인 상황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세계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단기간 내 위기 이전 수준으로 고용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9월 취업자 수가 일자리 추경 등에 힘입어 공공행정서비스업에서 33만명이 늘어 전체 7만1천명 증가했으나 제조업 등 민간 부문에서의 자생적인 일자리 수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하는 등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는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 줘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 보고서를 보면 전체 실업자 가운데 20~34세 사이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50.9퍼센트다. 이는 8월(49퍼센트)보다 1.9퍼센트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올 들어 최고치다. 수치만 봐도 청년들의 실업 고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선진국들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9.3퍼센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2.4퍼센트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그런데 청년고용률은 23.8퍼센트로 OECD 평균(43.7퍼센트)에 한참 미달한다.

이런 모순이 나타나는 것은 실업자 통계에 계산되지 않는 청년들이 많다는 뜻이다. 학원을 다니는 등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취업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구직 단념자,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고 있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돼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실제 지난 9월 20~29세 연령대에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1년 전보다 22.7퍼센트 급증한 26만9천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청년 취업, 젊은이와의 대화'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실업수당을 준다고 해서 국가가 일을 잘하는 게 아니다. 국가는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결국 좋은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기업이 잘돼서 일자리를 만들라는 뜻으로 '일자리 프렌들리'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진정으로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해외 취업 · 인턴 확대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정부는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에 나서고 있다. 노동부는 10월 29일 청년인턴사업,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글로벌리더 양성사업, 취약청년 일자리 지원, 단기일자리 제공 등 청년고용 대책에 대한 사업 분야별 추진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내년에도 8천2백4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24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고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조2천억원을 투입해 33만5천명을 대상으로 청년고용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당초 정부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올해 안에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용 사정이 내년 하반기에야 본격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방침을 바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산업현장 인력미스매치 해소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추진하고 전문가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청년고용 대책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 미취업자 채용 확대 대상 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식경제부도 10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우수 중소기업과 취업 희망자를 연결하는 '미래선도인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 데 이어, 10월 30일과 11월 2일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국제금융기구 공동 채용설명회를 열었다. 이 행사엔 세계은행

> 결국 좋은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기업이 잘돼서 일자리를 만들라는 뜻으로 '일자리 프렌들리'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진정으로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다.

(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 등 6개 국제금융기구와 OECD 인사 담당자들이 한국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참여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채용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언어구사 능력과 폭넓은 문화 포용력 등으로 국제금융기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든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 10월 22일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해외 취업 및 인턴십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 부설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윤조셉 원장은 "해외 인턴십에서 청년취업 문제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경우 취직 또는 채용이 인턴십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면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도 청년들의 해외 취업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민간기업들도 일자리 나누기, 인턴 채용 등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전문 무료 취업 포털사이트 '잡월드'를 개설해 취업 준비생과 중소기업을 연결해주고 있다. 현재 1만명이 넘는 취업 준비생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았다. 기업은행은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프라인 채용박람회를 열기도 했다.

현재의 경제회복에 대해 '고용 없는 성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결실을 거둬 청년층의 취업문이 활짝 열리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G

글 · 최호열 기자


구직에 목마른 젊은이들로 취업 박람회나 설명회마다 인산인해를 이룬다.

우리 취업했어요!

청년취업 지원 프로그램 인기 만점



소외계층 대상 사진 강사로 일하는 김수정 씨(오른쪽).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취업한 윤혜린 씨(왼쪽)와 동료 최인영 씨.

정경택 기자

"'성취 프로그램'으로 면접 약점 보완"

김수정(경기 고양시 공공미술프리즘 아트디렉터)

김수정(28) 씨는 지난달 '사진쟁이'로 일했다. 사진쟁이는 작년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문화예술단체인 '공공미술프리즘' 소속 사진 강사의 별칭이다. 김 씨는 10월 초 공공미술프리즘에 취직하자마자 소외지역 대상 생활문화공동체 프로젝트에 투입돼 고양시 백석동 흰돌마을 영구임대아파트의 노인 10여 명에게 사진을 가르쳤다. 노인들의 작품은 10월 말에 열린 '백석 한마음 대축제'에 전시되고, 언론에도 소개됐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김 씨는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했다. 같은 미술을 다루는 직업이지만 느끼는 보람은 천지 차이다.

"전공(미술)을 사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고 싶었어요. 제 가치관과 회사의 비전이 일치하는 회사를 찾다가 사회적 기업인 공공미술프리즘에 입사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어려워도 하고 싶은 일을 찾은 지금이 훨씬 즐거워요."

김 씨가 새로운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서울고용지원센터의 '성취 프로그램'이다. 고려대학교 미술교육과 석사 졸업 후 1년간 갤러리에 다니다 그만두고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취업 실전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성취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지난 여름 5일 동안 김 씨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쓰는 법, 모의면접, 면접 동영상 등의 실전 코스를 밟았다. 특히 동영상 모의면접 때 손 제스처를 줄이고, 하고 싶은 말을 두괄식으로 피력하라는 피드백을 받은 게 큰 도움이 되었다며 주변 구직자들에게도 성취 프로그램을 적극 권한다.

"중소기업 인턴제 통해 숨은 적성 찾았어요"

윤혜린(서울 링크프라이스 광고사업팀)

"취업난을 남의 얘기로만 알았어요. 처음엔 '어디든 안 되겠어?' 하는 자신감으로 취업 전선에 섰어요. 하지만 작년 하반기 경기가 나빠지고 취업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어학 점수나 수상 경력이 미흡한 제 스펙으로는 취업 바늘구멍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남들처럼 스펙을 쌓기에는 때를 놓친 것 같았고요."

2월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윤혜린(24) 씨가 석 달 동안 냈던 이력서만 50여 장. 대부분 면접도 가기 전에 서류 전형에서 미끄러졌다. 윤 씨는 절박한 심정으로 학교 취업 게시판을 뒤지다 중소기업 인턴제를 알게 되어 지원했다. 온라인 광고회사인 링크프라이스에 인턴으로 들어가 광고사업팀에서 6개월간 열심히 뛴 결과 윤 씨는 10월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링크프라이스는 온라인 광고업계의 중견회사로 직원이 1백50여 명이다.

"6개월의 인턴 생활이 제 숨은 적성을 찾아주었어요. 전공과는 다른 광고 일이 처음엔 낯설고 막연했는데, 실전에 바로 투입되어 일하면서 제 적성과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동아DB

"행정인턴 경험 덕에 면접 때 높은 점수 받아"

노은영(부산 효원굿플러스 홍보마케터)

졸업 학점 4.29(4.5만점)로 부산대 신문방송학과를 한 학기 조기 졸업한 노은영(23) 씨. 대학 시절 포항MBC '동해청소년영상상', 시청자미디어센터 '2006년을 빛낸 퍼블릭 엑세스상', 부산상공회의소 '부산 사랑 우수 인재상' 등을 휩쓴 노 씨에게도 취업의 벽은 높았다.

방송국 시험에 세 차례 낙방하는 등 쓴맛을 본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009년 2월부터 '행정인턴'을 시작했다. 5월까지 석 달간 남해지방해양경찰청(남해청)의 홍보직 인턴으로 해양경찰의 홍보영상을 기획, 촬영, 편집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일을 했다. 노 씨는 당시 활약상을 '꽃보다 해경(海警)'이란 수기로 재치 있게 담아 행정인턴제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인턴을 시작하자마자 '해양긴급신고 122' 홍보 영상을 완성했고, 해군 함정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긴박한 현장 촬영까지 스릴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언론고시를 준비하며 많이 좌절하고 아파하기도 했던 나를 위로해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준 해경인턴 생활은 상상 이상의 행복이었다."

노 씨는 당시 제작한 홍보 영상물이 남해청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부산시청 앞 전광판에 표출되는 영광도 누렸다. 행정인턴을 마치기 직전인 5월 말 효원굿플러스에 홍보마케터로 채용됐다. 효원굿플러스는 부산대 평생교육원, 영화관, 서점 등이 입점한 복합 문화쇼핑몰로 부산대와 민간 기업이 공동 투자한 회사다.

"면접관이 '행정인턴으로 일했던 열정을 우리 쇼핑몰에서 한번 펼쳐보겠느냐' 고 했을 때 합격 예감을 느꼈어요. 지금 홍보마케팅을 하는 데도 당시 인턴 경험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각종 이벤트와 공연을 기획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며 매장내 광고물을 제작하는 것까지 노 씨는 그야말로 팔방미인 솜씨를 발휘하고 있다. G

"뉴스타트 덕분에 새 출발"

백승훈(대구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사업팀)

백승훈(28) 씨는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지방대 출신 취업 준비생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흔쾌히 취재에 응했다.

"영남대 졸업을 1년 앞둔 2006년, 휴학을 하고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 생활을 시작했어요. 1년 바짝 준비하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자만한 거죠. 화려한 취업 스펙(학력, 학점, 토익 점수 따위를 합한 것을 이르는 신조어)이 따라주지 않으니 공무원 시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공부가 3년차가 되자 정말 암울 그 자체였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왜 대인기피증, 자살 충동이 생기는지 알겠더라고요."

방황하던 백 씨에게 노동부의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뜻밖의 돌파구였다.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할 때까지 직장체험,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을 1년간 지원하는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다. 백 씨는 4주간의 1단계 프로그램을 통과한 후 3월에 대구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총무 담당직을 지원해 당당히 합격했다.

"뉴스타트에서 구직 스킬도 얻었지만, 담당 선생님께 칭찬을 들으면서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했어요. 구직 기술만 키워봤자 취업이 되어도 그만두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만의 마인드맵을 그려 강점과 약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자신감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백 씨는 고교 시절 댄스 그룹을 만들어 공연하고, 대학 시절 집 근처 복지관에서 청소년 댄스 동아리를 이끌기도 했다. 한때 춤을 춘다는 이유만으로 불량 청소년으로 낙인찍혔지만, 도리어 그 재주가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백 씨는 평생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을 위해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한다.

글 · 최은숙 기자



바늘구멍 취업문을 뚫기 위해서는 정부의 청년취업 지원책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래는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모의 면접을 보는 모습.



강수연(24) 씨는 지난 2월부터 기업은행과 조선일보가 함께 펼친 '청년취업 1만명 프로젝트'의 1만 번째 취업자다. 10월 말 서울 구로동의 의류 수출업체 (주)에이휘스트에 채용된 강 씨는 지난해 초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하고, 흔치 않은 스와힐리어 및 영어 실력, 탄자니아 현지적응훈련을 거치는 등 '준비된' 인재였다. 하지만 불황으로 꽁꽁 언 취업시장은 강 씨에게도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다 10월 중순 '청년취업 1만명 프로젝트' 사이트인 잡월드에 가입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취업 기회를 잡았다.

청년실업 32만명

정부·기업 손잡고 취업 문 활짝 연다

노동부 공식 집계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청년 실업자는 32만명. 정부와 민간기업이 손잡고 청년실업 줄이기에 나섰다.

강 씨의 사례는 지난 10월 29일 노동부가 서울 공덕동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범정부 청년고용 대책 추진상황 및 계획'에 포함된 민간의 청년취업 지원 우수 사례 중 하나다. 기업은행과 조선일보가 2월부터 함께 추진한 '청년취업 1만명 프로젝트'를 통해 8만3천5백47명의 구직자와 3만4천62개 중소기업이 등록, 10월 29일자로 취업자 1만명을 돌파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15~29세 청년 실업자는 32만여 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5만7천여 명이 늘었다. 이처럼 좁디좁은 청년취업의 문을 뚫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소매를 걷고 나섰다.

먼저 정부가 책정한 올해 청년취업 지원 프로그램 예산은 모두 1조2천1백98억원. 이 가운데 9월 말 기준으로 67.8퍼센트인 8천2백66억원이 집행됐다. 이를 통해 취업교육을 받거나 취업 지원을 받은 청년은 25만명. 노동부 등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청년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총 69가지로 9월에 문을 연 청년취업 사이버 홍보관 '으라차차차, 힘내라 청년아'에 소개돼 있다. 그중에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고 성과가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실업급여 미수령 청년 구직자 대상 뉴스타트 프로젝트

뉴스타트(New Start) 프로젝트는 만 15~29세 이하의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청년 구직자를 위해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지원하는 종합 취업지원 클리닉이다. 참여자는 전문 상담원에게 1년 동안 단계적으로 △직업 상담과 취업 계획 수립 △직장체험, 직업훈련 △취업 알선, 취업서류 작성, 면접 기술 클리닉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1단계(4주)를 수료하면 참여수당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졸 이하 미취업자, 6개월 이상 장기 구

직자 등 저학력, 경력부족 등의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라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전국 종합고용지원센터 및 인크루트, 커리어 등 1백17개 민간전문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10월 말까지 1만5천7백18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 공공기관·민간기업 9만7796명에 일자리 청년인턴제

청년인턴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시행하는 중·단기 인턴 프로그램이다. 청년인턴제에는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중소기업 청년인턴, 행정인턴, 지방자치단체 인턴, 관광 분야 인턴 등 총 9만7천7백96명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특히 성과가 높았던 것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행정인턴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들은 수료 후 77퍼센트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인턴들은 수료 후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64.7퍼센트가 취업에 성공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만 15세 이상 30세 미만(군필자는 만 32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 대상이며, 이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임금의 50퍼센트를 최대 1년(인턴 6개월, 채용 후 6개월)까지 지원한다. 만 29세 이하 대졸 미취업자 대상의 행정인턴은 근무기간 10개월 이내에서 월 1백만원 선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청년 구직자에 집중 취업교육 취업 실전 준비 프로그램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노동부 산하 전국 고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인기가 높다. 구직 방향이 확실치 않을 경우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CAP)'을 통해 동기부여를 해주며, 구직 목표가 비교적 분명한 대학 4학년이나 졸업생은 '성취 프로그램'을 통해 12~15명의 소그룹으로 5일 동안 집중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올 초부터 10월 말까지 전국에서 성취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은 5천73명으로 그중 35.7퍼센트가 취업에 성공했다.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진로지도팀 우정옥(36) 상담사는 "성취 프로그램 참가자의 80퍼센트가 20대이며, 구직자들이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실전 기술을 익히는 좋은 기회"라며 "구직 열망이 높은 만큼 수업 분위기가 진지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구직자 대상 취업 캠프(1박2일~2박3일), 단기 취업 특강, 직업심리검사 등도 취업 실전 준비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 노동부·대학 연계 기업 현장 체험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덕성여대 3학년 윤지은(22) 씨는 지난 여름 한 달 동안 서울 용산구의 한 유통업체에서 일했다. 노동부와 대학이 연계된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15~29세의 미취업 청년(대







노동부의 청년취업 지원 사이트 '으라차차차, 힘내라 청년아!'에는 청년취업 지원 정책 69가지가 소개돼 있다(위). '청년취업 1만명 프로젝트'는 중소기업 일자리 1만 개를 계획보다 앞당겨 창출했다.

학 졸업자 제외)에게 주어진 기회다.

"저학년 때부터 취업을 준비했는데, 직장체험을 통해 기업의 운영구조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 응대, 비즈니스 교육, 영업, 판촉까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귀한 경험이었어요."

윤 씨는 직장체험 프로그램 덕분에 졸업 후 마케팅과 관련된 진로를 정하는 데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10월 말까지 2만2천3백33명이 참여해 수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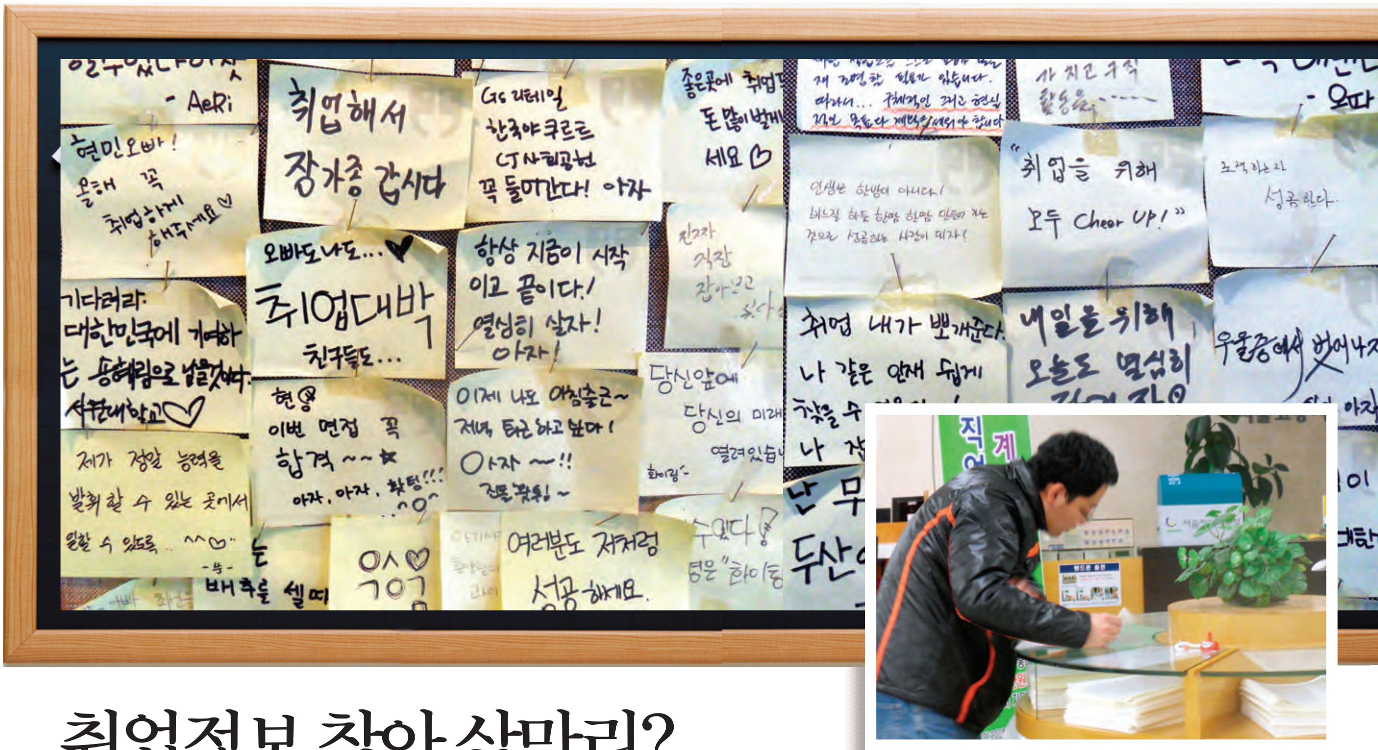
✓ 금융권·중소기업 중심 인턴 채용 민간기업 일자리 나누기

민간에서도 금융권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나누기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 올 초부터 9월까지 우리금융그룹 등 금융권에서 6천여 명, KT그룹 등 비금융권에서 4천여 명을 인턴으로 채용했다.

신한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력해 정규직 1인당 월 1백만원씩 연간 1천2백만원을 지원하는 'job-S.O.S 4U 프로젝트'의 성과도 높다. 총 3백50억원이 투자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7월부터 10월 말까지 1천1백78개 중소기업에서 2천9백80명의 정규직 일자리가 생겼다. 또 기업은행은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2월부터 '청년취업 1만명 프로젝트'를 시작해 10월 말에 1만명 취업자 목표를 앞당겨 달성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노동부 청년취업 사이버 홍보관 work.go.kr/youth/chachacha
기업은행 잡월드 ibkjob.co.kr



취업정보 찾아 삼만리? 워크넷으로 가면 고민 끝!

〈work.go.kr〉

노동부 산하 전국 48개 고용지원센터는 청년취업 희망자들이 잘만 이용하면 자신의 취업 적성을 발견하고 취업 스펙 쌓기, 취업정보 찾기에도 아주 유용한 곳이다. 고용지원센터를 두 배로 잘 이용할 수 있는 'A to Z.'

언젠가부터 대학가의 핫 키워드는 '스펙(Spec·학점이나 자격증, 영어 성적 등 취업 때 제출하는 구직자의 객관적인 조건)'이다. 취업에 목마른 청년취업자들의 가장 큰 관심이 '스펙' 올리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펙이 좋다고 무조건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취업한 다음에도 적성이 맞지 않아 다시 직장을 옮기기도 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나의 취업 적성 찾기부터 취업정보까지 고른 정보가 필요하다. 이때 유용한 곳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다. 전국 48개 고용지원센터는 내게 맞는 직업과 이력서 작성, 구인구직 정보 등 취업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 담당자들의 조언에 따라 고용지원센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 워크넷을 뒤져라!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 담당자들의 첫 번째 충고는 "워크넷(work.go.kr)에서 고용지원센터에 관한 정보를 찾아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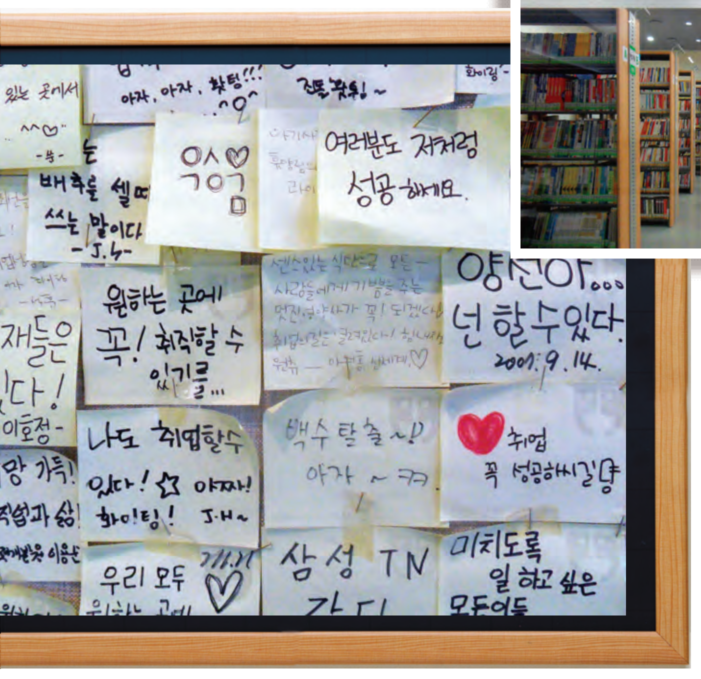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고용지원센터 직업진로지원팀의 차영민 씨는 "취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정보다. 워크넷은 그 자체로도 유용하지만 전국 고용지원센터의 새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에 대한 정보가 빠짐없이 올라 있다"며 "대학 졸업생들은 학교 취업정보실을 통해 고용지원센터에 관한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학교에 따라 정보를 제때 못 올려 취업 희망자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다"며 이렇게 조언했다.

☑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찾아 상담하라!

당신은 의기소침한 '장미족(장기 미취업자)'? 혹은 직장에 적응 못한 '메뚜기족(이직 준비자)'? 아니면 아직도 내게 어떤 직업이 맞는지 모르는 '대오족(대학 5년생)' 또는 고졸 취업자? 일단 워크넷에서 고용지원센터에 대한 기본정보를 얻었다면 다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취업에 발품만한 투자가 없으니까.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찾게 되면 먼저 전문 상담원을 찾아 상담을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청년취업 담당자들의 두 번째 충고다.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청년취업 희망자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고 한다. 첫째 진로 미결정자, 둘째 진로 결정자, 셋째 취업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심리 개선이 필요한 경우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 석태선 씨는 "이러한 분류에 따라 다음 처방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청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잡카페 벽에 붙은 취업 희망자들의 소망 메모들. 고용지원센터는 청년취업 희망자들에게 구직의 터전이 되고 있다.

년취업 희망자는 현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아야 고용지원센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진로 아리송할 때는 청년 직업지도(CAP) 프로그램!

고용지원센터가 진로 미결정자에게 내리는 가장 대표적인 처방은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CAP·Career Assistance Program)이다. 19~2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CAP는 아직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년취업 희망자들에게 진로와 직업 탐색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5일간 무료로 진행되며 10~15명이 한팀을 꾸려 자기 탐험과 기업 정보여행, 자기 소개, 이미지 메이킹 등을 익히게 된다. CAP는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과 구직기술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진로는 정했는데 구체적 기술이 없다면 성취 프로그램!

이제 진짜 '스펙' 구성에 들어간다. 자신의 진로는 정했지만 취업을 위한 '스펙'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자신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담을 스펙을 갖출지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12~15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이 5일 동안 고민 나누기와 스트레스 대처, 이력서와 면접 사례 보기, 자신의 보유능력 확인, 구직네트워크 구축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기법, 모의면접과 걸림돌 극복 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

자신감이 없다면 취업희망 프로그램!

취업이 안 되면 누구나 자신감을 잃게 된다. '백수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욱 그렇다. 이런 경우엔 취업정보나 기술 찾기보다 자신감과 자긍심 회복이 우선이다. 고용지원센터는 이러한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취업희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령과 성별, 학력 등에 제한 없이 15명 내외의 소그룹이 4일 동안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 향상, 타인과의 관계 향상, 나의 특성과 직업 찾기, 긍정적인 인생설계 등을 이끌어낸다. 이 프로그램을 마친 다음 진로가 분명해진 경우 성취 프로그램, 진로가 미결정인 경우 CAP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된다.

스스로 나를 알자 심리검사존 찾기

고용지원센터를 찾는다고 누구나 전문심리상담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고, 장·단기 취업특강을 듣기도 한다. 이럴 때 유용한 것이 고용지원센터 내 잡 카페(Job Cafe) 등에 설치된 사이버 심리검사존에서 자신의 직업적성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다. 컴퓨터가 설치된 사이버 심리검사존에서는 워크넷에서 운영하는 직업선호도검사와 적성검사 등 10가지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심리검사 결과 해석과 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다.

아는 게 힘! 취업정보도서관과 인터넷존 이용하기

요즘 청년취업 희망자들은 인성·적성검사다, 면접이다 해서 알아볼 것도 많다. 하지만 이들의 주머니 사정에는 한계가 있다. 이때 고용지원센터의 다양한 취업정보 도서들은 아주 유용하다. 인터넷 정보검색존 역시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인터넷의 경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2시간으로 이용이 제한돼 있다.

머리도 맞대면 낫다! 취업준비 동아리방

청년취업 희망자들은 취업 스터디를 많이 한다. 그런데 요즘은 스터디룸도 유료로 빌려야 한다. 미취업자 처지에서는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 이때 유용한 것이 고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잡 카페의 취업 동아리방이다. 깔끔한 의자에 널찍한 테이블이 비치된 쾌적한 시설을 하루 4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사전 예약이 필수.

11월 11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지원센터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취업 동아리방을 빌린 김모(23·2010년 봄 대학졸업 예정) 양은 "인근 학원에 함께 다니는 친구들과 토익 공부를 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며 "시설도 쾌적하고 취업정보가 많아 구직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만족해했다. G

글·박경아 기자 / 사진·정경택 기자

고용지원센터 Tel 1588-1919



정경택 기자

11월 11일 한국전력에서는 전문인력 채용 인성 및 적성검사가 있었다. 녹색성장 기술 및 해외사업 부문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시험으로, 해외 MBA와 로스쿨 졸업자 등 높은 '스펙'을 가진 지원자가 많았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알려주는 합격 노하우

스펙보다 열정… 도전하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

취업이 쉽지는 않지만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온다. 스펙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하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달콤살벌한 조언을 들었다. 세상은 도전정신, 창의성, 열정을 가진 인재를 원한다.

한국전력

고용 안정성이 중시되면서 구직자들의 공기업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공기업으로 꼽힌다. 올해 3월 취업포털 커리어와 〈월간 리크루트〉가 대학 4학년생과 신입 구직자 1천9백22명을 대상으로 한 입사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공기업으로 한국전력이 1위를 차지했다.

11월 11일 한전에서는 전문인력 채용 인성 및 적성검사가 있었다. 서류전형을 통과한 1백24명의 응시자들은 다시 개별 면접과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통과해야 최종 합격자가 된다.

한전의 백재현 인력개발팀장은 "2020년까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세계 5위권의 공공 서비스 기관이 된다는 한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녹색성장기술 및 해외사업 부문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시험으로, 해외 MBA와 로스쿨 졸업자 등 뛰어난 인재들이 몰렸다"고 귀띔했다.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역할과 기여 가능한지 평가"

지난해 상반기 1백84명의 대졸 수준 공채를 한 한전은 올해는 전문인력 공채만 실시하고 대졸 수준 공채는 하지 않았다.

한전의 대졸 수준 공채는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및 적성검사, 3차 논술, 면접, 인성·적성검사 과정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국가 중요 시설에서 근무하게 되는 만큼 법령에 따라 입사자의 신원조회가 필수적이다.

서류전형은 외국어 성적(1백점)과 자격증 점수(30점)만으로 실시되고, 전공 필기시험과 논술시험을 보는 것이 일반 기업과 다른 점이다. 외국어는 영어 등 8개 외국어 중 최상위 성적을 인정하고, 자격증은 지원 분야별로 입사 후 활용도를 고려해 차등 가점제를 적용한다. 전공 필기시험은 해당 분야의 전공시험을 평가하는 것이지만 전공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기술 분야의 경우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해야 지원할 수 있다. 논술은 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 비판 능력과 해결책 제시 능력, 논리적 표현력을 평가한다.

백 팀장은 "이런 독특한 전형 때문에 한전에서는 지방대라거나 지명도가 낮은 대학 출신자라고 해서 차별받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전의 최근 5년간 채용 현황을 학교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남대 출신이 90명으로 가장 많다. 한전은 또한 나이 제한이나 취업 재수생에 대한 불이익도 전혀 없다.

백 팀장은 "면접은 자기소개서를 기초로 질의응답이 실시되므로 면접위원의 처지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개별 면접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잠재역량, 열정, 실행력이다. 이는 한전이 원하는 인재상이기도 하다.

한전의 인재상은 열정과 실행력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도전하는 사람, 창조적 사고와 유연성을 갖춘 사람, 팀워크와 희생정신,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강한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이다. 백 팀장은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전에서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부각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토론 면접에서는 조직에서의 협력정신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태도, 표현력 등을 평가한다. 따라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너무 소극적인 것도 감점 요인이 된다.

또 인성 및 적성검사는 한전 조직과의 적합도와 잠재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부적격 판단이 나오면 다른 전형의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불합격 처리될 만큼 중요하다.

KT

KT는 1천9백83만4천명의 유선전화 고객, 1천4백80만4천명의 이동전화 고객, 6백75만7천명의 초고속 인터넷 고객을 가진 대표적인 통신회사다. 올해 6월 KTF와 합병하면서 유선전화 중심의 사업구조를 무선과 인터



KT의 면접 전형에는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이 있다.
실무 면접은 직무역량 면접, 프레젠테이션 면접, 그룹토의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KT 신입사원들이
고객센터를 체험하고 있다.

넷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더 높아졌다.

올해 하반기부터 '올레(Olleh) 경영'을 선포한 KT는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컨버전스(융합) 리더' 라는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다. KT 인재경영실 정준수 인사 담당 상무는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사람, 독창적 사고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 도덕성과 인간미로 고객의 믿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높은 토익 성적보다 자신이 지원한 분야에서의 두드러진 경험이나 자격증을 가진 지원자가 유리하다. 따라서 본인의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KT 종합적성검사, 1차 실무 면접, 2차 임원 면접, 채용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서류전형은 전공, 학점, 외국어 성적, 자격증 여부, 인턴 및 봉사활동 경험, 수상 경력,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한다. 올해는 지원 자격 기준인 외국어 점수를 낮추고 평균 B학점 취득 조건도 폐지하였다.

정 상무는 "토익 성적은 6백 점만 넘으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원한 분야에 맞는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는 것"이라며 "졸업 학점도 중요하지만 관련 분야에서의 두드러진 경험이나 자격증을 가진 지원자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자기소개서도 KT 인재상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역량별로 본인의 경험과 보유역량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KT 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로 구성돼 있다. 인성검사는 자기관리 능력, 다양한 환경에 대한 적응성, 감정관리, 대인관계 능력, 스트레스 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다. 문항은 예를 들어 "나는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모든 관점에서 문제를 신중히 생각한다" 또는 "나는 명령을 하고 일을 진행시키기를 좋아한다"와 같은 항목에 답변하는 형태다. 적성검사는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언어, 수리, 논리, 창의력 등 다양한 분야를 검사한다.

KT 종합적성검사를 통과하면 면접을 거쳐야 한다. 핵심가치와 직무역량을 평가하는 실무 면접은 직무역량 면접, 프레젠테이션(PT) 면접, 그룹토의 면접으로 구성돼 있다. 직무역량 면접은 1 대 3(면접위원)으로 진행된다. 프레젠테이션 면접은 3 대 3으로 PT자료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 주제는 KT와 관련되거나 시사성 있는 주제 등 지원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분야의 주제가 제시된다. 그룹토의 면접은 5, 6명의 응시자가 약 45분 동안 주어진 주제에 대해 팀워크를 바탕으로 제시된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졸업 학점보다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자격증이 유리"

또 임원 면접은 응시자의 인성, 태도, 가치관에 대해 집중 평가한다. 정 상무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한 일 중에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 임원 면접 중에 '저글링' 시범을 보여준 뒤 따라 할 수 있으면 가산점을, 못하면 감점을 준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가 눈치만 볼 때 여성 지원자 한 명이 나섰다가 실패했지만,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를 지닌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KT는 지난해 1백26명의 신입사원과 74명의 경력사원 등을 선발했다(KTF 포함). 올해는 상반기에 59명의 경력직을 뽑았고, 11월 현재 3백명의 신입사원을 선발 중이다.

한경희생활과학 (주)한경희생활과학은 국내 제1의 생활가전 전문 기업이다. 한경희 대표는 우리나라 주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면서도 마땅한 대안이 없었던 바닥 청소용 스팀청소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1999년 회사 설립 후 온돌문화에 맞게 스팀청소기를 개발해 2001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스팀청소기 발명 특허를 받았다. 2005년 스팀청소기로 1천억원대 매출을 기록했고, 2007년부터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지사를 설립하고 자체 브랜드(HAAN)를 내세워 미국시장을 공략해 2008년 1천2백만 달러(약 1백5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올해는 미국에서 5천만 달러, 중국에서 2천만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어 기술력이 있는 제품으로 승부한다면 중소기업들도 세계시장을 제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경희생활과학은 매년 1회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올해 7월 사원 모집에는 10명 모집에 1천명 가까이 지원해 채용 인원을 16명으로 늘렸고, 그중 합격 포기자를 제외하고 현재 12명이 근무 중이다.

경영지원본부 인사팀 이지원 대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사람"을 원한다며 "한경희생활과학이 1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장한 데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임직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사람 원해"

선발은 서류전형, 1차 실무 면접, 2차 임원 면접을 통해 이뤄진다. 이 대리는 "서류전형에서는 업무별로 전공, 외국어 능력, 자격증, 자기소개서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특히 이력서를 성의 있게 작성했는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했는지 주의 깊게 본다"고 말했다.

서류전형에서 특정 전공에 가산점을 주기는 하지만 지원 시 전공 제한은 없다. 또 영어 성적이나 자격증도 지원자의 기본 역량을 평가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면접에서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기본일 뿐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대리는 "단체 면접이라면 평소보다 한 톤 정도 높여서 말하는 것이 좋고, 다른 지원자의 답변 내용을 경청하되 고개를 돌려 바라보지는 말아야 한다. 또 면접관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면접관 중 합격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면접관(실무임원 또는 대표이사 등)을 재빠르게 파악해야 하며, 그 면접관에게 조금 더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요즘 취업 재수생들도 많다. 취업 재수생에 대한 불이익은 없지만 면접 시 그 이유를 묻기도 하므로 납득할 만한 대답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청년실업 1백만 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늘 인재에 목말라 한다. 이 대리는 "구직자들이 조금 더 현실에 맞는 생각을 했으면 한다"며 "본인이 취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올해 7월 채용된 한경희생활과학 신입사원들이 사내 연수를 하고 있다.

기업·대학 간 취업 연계 활성화를 위한 만남의 장

기업·대학 힘 모아 "청년실업 타파"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와 대학 취업 담당자들이 만났다.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대명 변산리조트에서 도내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와 대학 취업 담당자 1백여 명이 참가한 기업 · 대학 간 취업 연계 활성화를 위한 만남의 장을 열었다. 지난해 시작돼 네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주)삼진엘앤디, 참앤씨(주), 이화다이아몬드공업(주), 한국호야전자(주), (주)대광반도체 등 40여 개 기업과 경기대, 경희대, 아주대, 한국외국어대 등 35개 대학이 참여했다.

기업 인사 담당자와 대학 취업 담당자의 만남은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본적인 구인 · 구직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과 기업의 유기적인 채용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대학의 미취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업에서 실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가 올해 채용 계획과 원하는 인재상을 대학 취업지도 담당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도 같이 마련해 대학 졸업 예정자에 대한 취업지도와 진로 상담을 위해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사로 진행됐다.

경기도 고용정책과 정창섭 주무관은 "아직 성과를 내보이기에는 이르지만 기업과 대학이 만남을 통해 스스로 이점을 찾도록 하고 있다"며 "기업과 대학의 네트워크가 자리 잡으면 침체된 고용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와 대학 취업 담당자의 모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과 대학의 취업 연계사업을 지원해 청년실업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첫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성황

IMF·ADB 등 채용 후보자 인터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매스미디어에서 자주 접하는 국제금융기구의 이니셜들이다. 이들 국제기구의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우수하고 똑똑한 한국 인재들을 찾아온 것이다.

"앞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일하고 싶지만 솔직히 주변에 이런 국제금융기구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 좀 막막해요."

국제금융기구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라는 대학생 김현진(22) 씨의 고민이다. 김 씨처럼 외국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해외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만큼 해외 취업을 준비하기란 쉽지 않다. 친구들이나 선배에게 쉽게 조언을 구할 수 없고 구체적인 정보도 얻기 힘들다. 이런 이들에게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기획재정부가 처음으로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연 것이다. 서울과 지방에 있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10월 30일은 연세대에서, 11월 2일은 부산대에서 '제1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가 열렸다.

10월 30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장에는 행사 시작 시간인 오전 9시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수업을 빠지고 찾아온 대학생에서부터 휴가를 내고 찾아온 경제·금융 관련 회사원들까지 6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채용설명회장을 찾았다.



동아DB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알리기 위해 TBS 등 방송국에서는 취업 특집 방송을 해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이날 행사에는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 등 6개 국제금융기구 관계자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사 담당자 등 27명이 참석했다. 특히 로하니 ADB 인사담당 부총재, 아누프 싱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등 실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금융기구 관계자 및 참석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국제금융사회에서 우리 경제력에 맞는 발언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실제 국제금융기구를 움직일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환영사에서 밝혔다.

대학생부터 경제·금융 관련 회사원까지 600여 명 참석

또한 윤 장관은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갖춰야 할 소질에 대해서도 말했다. 언어구사 능력, 전문성, 국제화 마인드 그리고 꿈을 키우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런 소질들을 충분히 갖춘다면 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국제금융기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매년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관 환영사에 이어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국제금융기구 인사 담당자들이 '국제금융기구의 인사 정책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패널 토론을 가졌다. 이후 인턴십, 신입사원, 경력사원 등을 뽑는 채용 설명이 이어졌다.

국제기구의 등급이 1~10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 직급별로 나이 제한도 있다는 점, 채용 시기도 상시 또는 2년에 한 번 정해져 있다는 점 등 국제금융기구 관련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자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빠르게 정보를 받아 적었다.

1984년에 WB에 입사한 김훈애(54) WB 동아시아 매니저는 "유창한 영어구사 능력 외에도 국제적인 마인드와 열정이 필요하다"며 "내가 입사하던 시절에 비해 지금은 누구라도 꿈꿀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됐다"고 참석자들에게 용기가 되는 말을 건넸다.



동아DB

지난 10월 30일 연세대에서 열린 제1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에는 6백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참석해 앞으로 국제금융기구에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얻었다.

국제금융기구의 설명이 끝나자 참석자들이 가장 기다리던 Q&A 시간이 됐다. 국제금융기구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하는 참석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서른이 넘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늦깎이 대학원생, 직장까지 그만두고 다시 국제금융기구 취업을 노린다는 사람, ADB에만 가고 싶다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고 묻는 사람 등 국제금융기구 취업을 꿈꾸는 열정적인 참석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쏟아지는 질문에 각 기구 관계자들은 하나하나 친절히 답했다. 이들은 "가까운 미래에 한국인 후배들이 들어올 것을 기대한다"는 배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미주개발은행, 내년 한국인 20여 명 하계인턴 채용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때 IDB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성채원(23·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씨는 "4학년이어서 앞으로의 진로를 금융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보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국제금융기구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WB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김중선(25·건국대 신소재공학과) 씨 역시 "이번 채용설명회를 통해 국제금융기구에 대해 잘 알게 됐다"며 "취업을 준비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도 생각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 언어구사 능력, 전문성, 국제화 마인드 그리고 꿈 등 이런 소질들을 충분히 갖춘다면 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국제금융기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날 행사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녔던 것은 채용설명회 기간 중 IMF, ADB, EBRD 등에서 총 63명의 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점이다. 이번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기구별로 전문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실제 채용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IDB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한국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는 한국인 15~20명을 하계인턴으로 채용할 계획도 밝혔다.

한편 국제금융기구의 한국인 비율은 평균 0.7퍼센트로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2.2퍼센트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 이강호 국제기구과장은 "국제금융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정보 등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앞으로 협력을 강화해 많은 한국 인재들이 국제금융기구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민지 기자

국제금융기구 ifi.mosf.go.kr



일러스트 · 이우정

나의 취업 무대… 해외에서 찾는다

누군가 말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지금 우리 청년취업 희망자들에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는 넓고 가질 직업은 많다고. 눈을 돌려보자, 새로운 기회가 그대 앞에 펼쳐지리니….

요즘 젊은이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 중 하나가 '구글러(Googler)'다. '구글 직원'을 뜻하는 구글러가 '꿈의 단어'가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세계 최고 인터넷 기업인 구글(Google)의 미국 캘리포니아 본사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근무 분위기 때문이다. 호텔 라운지 같은 사무 공간, 다양한 놀이시설, 푸짐한 푸드코트 등에 방문자들의 입이 벌어진다. 사무실 안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에는 듣는 이들의 가슴이 설렌다. 이렇게 전 세계인이 선망하는 구글 본사에 당당히 합격한 김태원(29) 씨. 지금은 구글코리아 대리로 근무하는 그는 젊은 구직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지난해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한국어 강사로 근무한 이재숙(30) 씨. 그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한국어 강사 양성과정 3개월 연수를 받고 이 일을 하게 됐다. 좀 더 나은 한국어 강사가 되기 위해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의 사례는 '2009년도 해외취업 성공수기' 최우수작으로 뽑혀 정부의 글로벌 진출 종합사이트인 '글로벌 점프'(globaljump.go.kr)에 게재됐다.

✓ 2013 글로벌 리더 10만명 양성 글로벌 리더 양성사업

11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1층에서는 '영(young)다방과 글로벌 리더 멘터 특강'이 열린다. 강사는 구글러 김태원 씨. '영다방'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cafe.naver.com/youngdabang)로, 정부의 글로벌 리더 양성사업을 홍보하는 인터넷 카페다.

'2013년 글로벌 리더 10만명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는 글로벌 리더 양성사업의 하나로 청년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주기 위해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7개 정부 부처가 범정부적으로 시행하는 글로벌 리더 양성사업은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글로벌 점프'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직결되는 해외취업은 △해외취업 연

수 △해외 건설인력 양성 △해외취업 알선 △해외취업 훈련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 29세 이상 미취업자 대상 해외취업 연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아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 호주, 노르웨이 등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연수를 주선한다. 구인 업체에서 요구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29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직종은 정보기술(IT)과 자동차 설계, 항공 승무원, 한국어 강사, 비즈니스 등이다. 신청자는 해당 국가의 취업비자를 받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취업 연수를 통해 모두 1천1백21명이 일자리를 찾았다.

✓ 해외 건설현장에 우리 인력을 해외 건설인력 양성

국토해양부가 맡고 있다. 정확하게는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현장 진출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며, 플랜트 전문건설 인력과 해외건설 일반관리자 두 코스로 나뉘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자격 요건은 △토익 7백 점 이상인 졸업 예정자 또는 취업 준비생으로 △기계, 화공 등 플랜트 관련 전공자로 △평균 B학점 이상이거나 △토목, 건축직에서 플랜트 직종으로 전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 홍종길 주무관은 "지난해 첫 교육을 실시해 플랜트 4백17명, 일반관리 2백41명 등의 인력양성 교육을 마쳤고, 이들 중 60퍼센트가량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 월드잡 구직등록으로 해외 일자리 해외취업 알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월드잡'(worldjob.or.kr) 사이트에 구직등록을 해 해외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월드잡을 통해 구직등록과 상담을 접수하고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선발과 알선, 면접과 출국 지원 등을 해준다. 알선 분야는 IT, 자동차 설계, 항공 승무원, 한국어 강사, 비즈니스, 호텔관리, 형틀목공, 용접, 배관 등의 직종이다.

최소 2, 3년 이상의 직무경력을 요구하며, 전문직일수록 높은 수준의 언어 구사 능력이 필요하다. 전문직의 경우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여야 하며, 직종에 따라 특화된 국제자격이나 면허가 필요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지원팀 하채용 과장은 "지난해 해외취업 알선으로 3백18명이 취업했다"며 "올해는 6천명에 대한 해외취업 알선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역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취업 훈련은 해외취업을 처음 지원하는 사람은 물론 전직(轉職) 희망자도 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중국 취업 비즈니스와 일본 취업을 위한 IT 관련 분야 취업 훈련을 실시 중이다. G

글 · 박경아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지원팀 Tel 02-3271-9121~6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 Tel 02-2110-8364

한국 진출한 글로벌 알짜기업의 인재 찾기 2009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알짜기업'들이 참가한 2009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가 11월 6,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돼 약 1만5천5백명의 구직자가 몰렸다.

지식경제부와 코트라(KOTRA)가 주최한 이번 채용박람회는 올해로 4회째. 외국인 투자기업 91개사가 참가해 모두 4백3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으로 즉석에서 이력서를 받고 면접을 실시했다. 참가업체 중에는 한국네슬레, 한국바스프, 한국로버트보쉬기전, 오티스엘리베이터, 구글 등 모기업이 '포춘 글로벌(Fortune Global) 5백대 기업'에 속한 21개사도 있었다. 이들의 채용 분야는 연구개발, 마케팅, 엔지니어링, 전산, 관리직, 인사, 회계 등 업종별로 다양했다.

코트라 외국기업고충처리팀 이희연 대리는 "이번 채용박람회의 실제 채용 결과는 한 달쯤 뒤에 파악할 수 있다"며 "업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채용이나 수시 채용을 위해 미리 이력서를 받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일부 인원만 한 달 내 채용이 결정되고 나머지 채용 인원은 추후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리는 "원래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인력 채용 편의를 돕자는 취지로 도입된 이 채용박람회에 청년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아 앞으로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 구직자들이 이번 채용박람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영문 이력서 작성법 등 취업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세미나도 열렸으며, 전문 컨설턴트들이 운영하는 취업컨설팅존, 영어면접체험관, 취업외국어체험관 등도 운영됐다.

동아DB



2009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를 찾은 한 여성 구직자가 외국인 투자기업 인사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 없다 하고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 없다 하네

청년 고용 해법 찾기 전문가 좌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 상황은 빠른 속도로 호전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구직자는 늘어나고,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등 청년 고용시장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청년 고용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였다.



11월 11일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왼쪽부터)가 모여 청년실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29일 서울 공덕동 산업인력공단에서 열린 '청년취업, 젊은이와의 대화'에 참석해 "국정의 최고 목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경제가 풀어야 할 최대 숙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문제점인 대졸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이 공존하는 미스매칭(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자리에 모여 청년 고용시장 현황, 정부의 청년 고용정책 추진 상황과 문제점,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양준모(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 청년실업 문제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 9월 현재 우리나라 청년(만 15~29세) 실업자가 32만명이고, 실업률은 7.6퍼센트로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은 그보다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이재갑(노동부 고용정책관)=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실업률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네 가지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취업하지 않았고, 취업 의사가 있어야 하며, 즉시 취업이 가능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잡히지 않는 실업자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43만명에 이르는 취업 준비자, 일시적 구

직 단념자들이 그들인데, 1백만명쯤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ILO의 실업자 기준으로 하면 이들은 실업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 등에서 '사실상 실업자'라든가 '체감 실업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ILO 기준의 공식적인 실업자 외에도 이런 취업 준비자 등을 취업 애로 계층으로 보고 함께 청년 고용대책의 타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통계를 낼 때 취업 준비자나 구직 단념자 등을 공식적인 실업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구직을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잠시 구직활동을 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등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때 대상자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으면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공식적인 실업 통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원하는 취업자를 1차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취업 애로 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준모=경제 상황이 나아진다고 하는데, 청년 고용시장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해 답답한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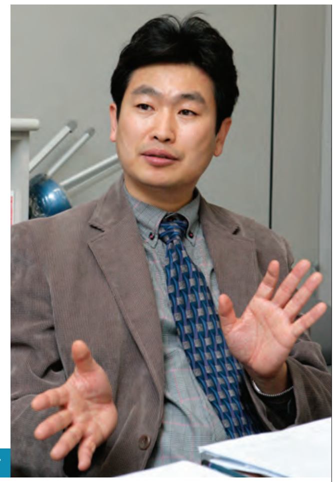
이재갑=우리나라의 청년 고용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큽니다. 우선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습니다. 1990년도에 33.2퍼센트이던 대학 진학률이 2008년에는 83.8퍼센트로 올라갔습니다. 10명 중 8명은 대학을 간다는 이야기죠.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6년 기준으로 일본은 45.1퍼센트, 미국은 64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 1위입니다. 이렇게 대학 진학자들이 많다 보니 졸업하면서 갈 수 있는 '대졸 학력자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동아DB

대학생들은 더 나은 첫 직장을 구하기 위해
채용설명회, 취업박람회 등을 찾아다니며
취업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준모=현실이 이렇다 보니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학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업무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학도 많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과잉 학력만 양산하는 대학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 “중소기업 인턴제를 통해 구직자는 일하면서 그 기업에 대해 알 수 있고, 중소기업은 인력비용 절감이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과 중소기업의 매칭률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이재갑=고졸 이하자의 구직 패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졸 이하자의 취업자 수는 많지 않지만 이들이 취업한 다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노동시장을 움직여다닙니다. 그만큼 좋은 직장에서 일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수가 많아서 32만명의 실업자 중 고졸 이하 실업자 수가 40퍼센트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졸 이상자의 구직 패턴은 취업 준비 쪽으로만 쏠려 있습니다.

양준모=청년 고용의 문제는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해도 생애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개 고졸자보다는 대졸자가 돼서 취업하는 게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을 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난 5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약 30퍼센트의 대학생이 휴학을 합니다. 1년 휴학을 하더라도 초기 노동시장 진입 시 고임금 직장을 잡겠다는 거죠. 삶의 뚜렷한 목표 없이 영어실력이다 학점이다, 스펙을 높인 학생들은 돈을 많이 주고 안정된 직장만 찾게 마련입니다. 중소기업을 추천하면 '내가 토익 9백50인데' 하면서 기분 나빠해요. 스펙 쌓기 경쟁 속에서 눈만 높아진 거죠.

이규용=대학생들의 스펙 쌓기 때문에 인적 자원 축적이 과거와는 다르게 상당 부분 궤도에 올라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뛰어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수한 대졸자를 채용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첫 직장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생애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춰 취업하라고 권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무리하게 높은 조건을 요구하거나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선결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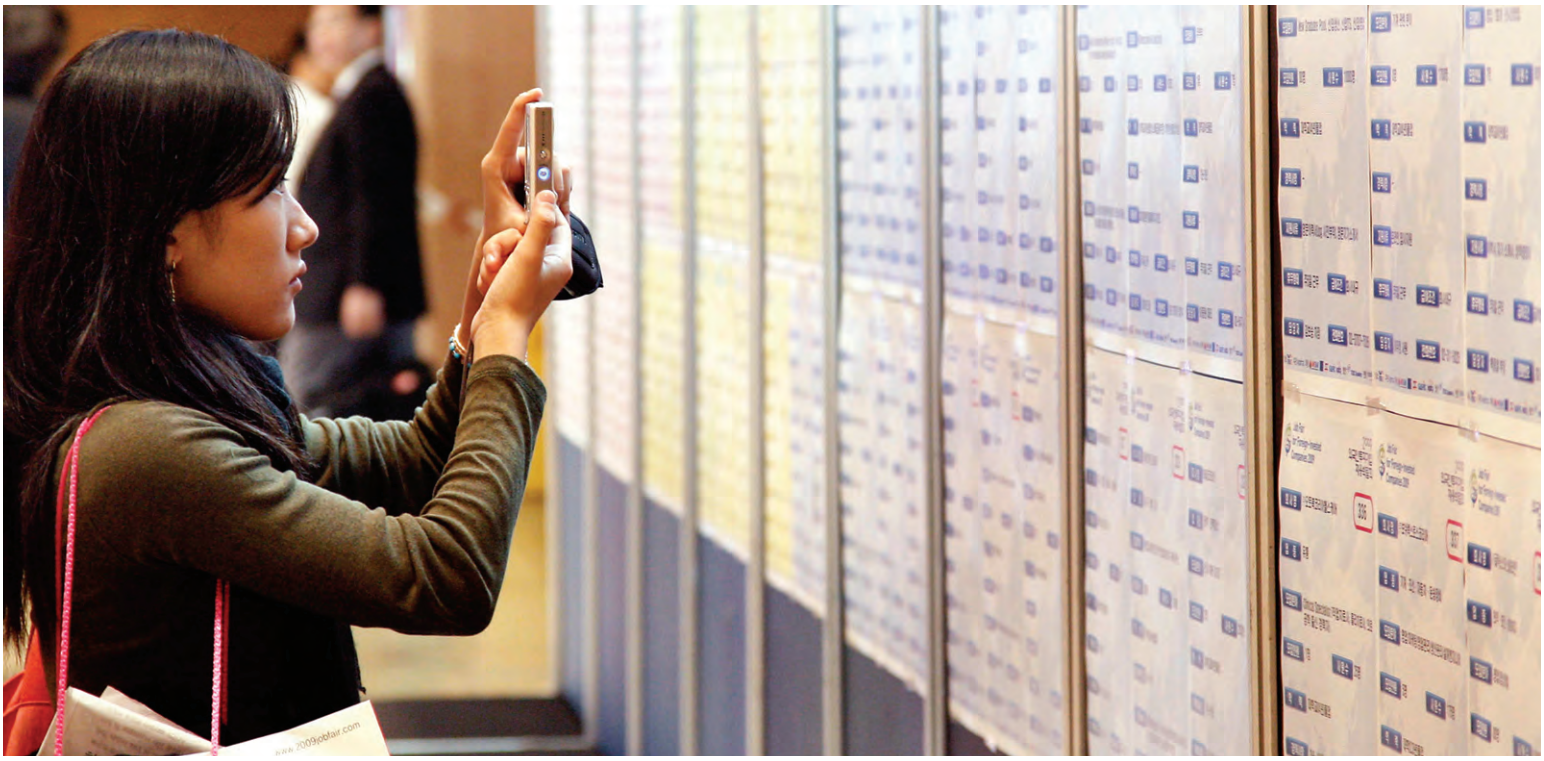
양준모=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무리하게 높은 조건을 요구하거나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선결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청년 고용을 고취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재갑=정부가 추진해온 청년 고용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전부터 해왔던 것과 최근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경제위기 이전부터 해온 것들은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미래산업 청년 리더 육성사업, 글로벌 리더 양성사업, 대학 취업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시적 사업으로는 공기업이나 행정기관, 중소기업 등에서 하고 있는 인턴제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인턴제 사업의 취지는 청년들이 미취업 상태로 1, 2년 방치되면 평생에 걸쳐 생애 소득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힘든 시기에도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직업 경험도 쌓고 경력도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청년 고용 대책 사업은 다른 OECD 국가들도 동일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일반적인 경기 상황이라면 고용 촉진 장려금이나 직업 훈련을 통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침체되면 민간 수요가 위축돼 이런 것들이 도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시적이긴 하지만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소득 지원을 해주는 단기적 임시 일자리인 인턴제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양준모=인턴제 사업의 효과는 어떤가요.

이규용=이 중 정부가 1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턴제가 대표적인 인턴십 제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대해 잘 모릅니다. 어떤 기업이 좋고 나쁜지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없기에 가고자 하는 열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연합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내년에는 취업자 수가 15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시장은 내년 하반기쯤에나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턴제를 통해 구직자는 일하면서 그 기업에 대해 알 수 있고, 중소기업은 인력비용 절감이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거기다 인턴으로 일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비율도 77.4퍼센트나 됩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과 일할 사람을 구하는 중소기업의 매칭률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그 외 행정인턴과 공기업인턴이 있는데, 행정인턴은 외부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냐는 건데, 행정인턴 경력을 가지고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본래의 목적에서 본다면 검토나 보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준모=우리나라 경제시장은 글로벌 경제 속에 편입돼 치열한 국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착안해 노동 인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청년 고용 정책들은 일회성이나 전시성 사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인턴제 같은 경우는 경제위기 시 실업을 잠시 멈추는 구실밖에 하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 필수적인 사업일 수 있지만 규격화된 평가 절차를 도입해 청년 고용 정책 사업의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없앨 부분은 없애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주로 직업 훈련 등 인력 양성 사업에 투자를 높여 고용시장에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갑=이번 청년 고용 대책과 관련해 각국 OECD 회원국에 권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3T 정책인데요. Timely, Temporary, Targeted가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적시에 임시적으로 목표 대상'에만 집중해 고용정책을 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청년 고용 정책은 경제위기가 끝나면 끝내야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년 고용 대책을 준비하면서 과거와 달리 평가 체계를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얼마나 지속해야 할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년엔 필요 없는 부분은 줄이고, 중소기업 인턴제나 직업훈련 제도처럼 효과적인 사업들은 좀 더 늘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준모=앞으로의 청년 고용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이규용=고용과 경기 간에는 보통 함께 가느냐, 뒤따라가느냐 등 동행성과 후행성의 논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나아지면 고용도 나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경기와 고용 회복 사이에는 시차가 생깁니다. 그 시차가 얼마나 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기업은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는 이전에 일하고 있던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을 늘리고 일용직이나 계약직의 채용을 늘립니다. 그 다음에 정규직 채용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간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임시 고용직의 자리가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청년층 역시 누적 계수가 많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나타나더라도 바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기회복이 되더라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

작지만 알찬 기업에서 일을 시작해서 좀 더 나은 일자리로 경력을 쌓아가면서 이동하겠다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청년 고용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

이재갑=내년 경제성장률을 4퍼센트로 잡으면 취업자가 금년보다 15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용 상황이 어려울 것 같고 내년 후반기나 돼야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고용정책 예산 자체도 상반기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청년 고용 문제가 해결되려면 고용시장의 고질적인 불균형 문제가 해소돼야 합니다. 기업, 정부, 청년, 노동단체, 대학 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취업정보에 취약하다는 점을 들어 내년에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정책을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좋은 일자리에 가려고만 하는 인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자리라는 건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작지만 알찬 기업에서 일을 시작해서 좀 더 나은 일자리로 경력을 쌓아가면서 이동하겠다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청년 고용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양준모=무엇보다도 청년실업의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학 사회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대학 취업률이나 졸업생의 임금을 추적 조사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하게 하는 거죠. 또한 대학이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해야 합니다. 연구하는 자세 없이 매년 똑같은 교재와 강의노트로 강단에 서는 교수들도 변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나 기업의 잡 셰어링 정책을 통해 일정 부분 신규 채용을 하거나 할당제가 도입돼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부분까지 해결됐으면 합니다. G

정리 · 김민지 기자



서울시가 지원하는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청년 창업가들. 이들은 창업 지원책을 통해 좀 더 자신있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실업' 위기를 '창업' 기회로

정부 지원 등 힘입어 20대 창업 올해 6.1% 증가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실업난, 특히 청년실업은 여전히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패기와 열정을 갖고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있다. 도전정신으로 똘똘 뭉친 청년 사업가들과 정부 지원 청년창업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오히려 위기 상황일 때 기회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부 티셔츠'라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에 성공한 조진현(27·한양대 산업디자인과) 씨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청년 사업가다.

독지가들의 기부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안타까웠다는 조 씨는 기부를 상품으로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을까 고민하던 중 '꿈 티셔츠와 캔버스 백'을 생각해냈다. 그는 티셔츠와 가방에 어린이들의 꿈을 그려주고 판매 수익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기부 콘텐츠를 창업 아이템으로 당당히 내걸었다.

조 씨가 개발한 이 아이템은 각종 창업 경진대회를 휩쓸다시피 했지만 창업의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경험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서울시가 진행하는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에 벤처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창업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서울시 도움으로 지난 7월 '얼스(Earth)'라는 회사를 차린 조 씨는 당당한 청년 기업가가 됐다. 그는 "앞으로 기부와 나눔에 앞장서는 회사로 이끌고 싶다"며 "우수한 콘텐츠 판매로 피드백이 명확한 기부 시스템을 구축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멘터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이색 콘텐츠로 창업에

성공한 조용철(26·성균관대 영상학과) 씨도 조진현 씨처럼 '아이디어'로 도전장을 낸 청년 사업가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그는 용돈을 벌기 위해 대학 시절 내내 아르바이트로 중고등학생 과외와 학원 강사 일을 했다. 그는 수업 시간에 공부가 하기 싫다는 고등학생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 아이들에겐 무조건 학습만 시킬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인 '싸이월드'를 떠올린 조 씨는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기 위해 이와 비슷한 '멘터링 홈페이지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그러던 차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모집하는 '콘텐츠 1인 창조기업' 공고를 보게 됐고 사업을 좀 더 구체화해 지원한 끝에 창업 지원금 2천만원을 받게 됐다. '멘토로그'라는 회사를 차린 그는 "내년 3월 멘토로그 서비스를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청소년들의 꿈을 찾아주는 희망 프로젝트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년창업은 주로 혼자만의 아이디어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합심해 창업하기도 한다. 건국대 동아리 '걸작(Girl作)'이 바로 그 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친한 친구였다는 박미영(24·건국대 광고학과), 정다운(25·건국대 광고학과), 조민지(25·국민대 언론학과) 씨는 평소 공모전이나 대회 등에 함께 출전하며 다양한 창업 아이템에 대한 안목을 쌓아왔다.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선정되면 2천만원 창업자금 지원

그러던 중 '실타래'라는 웹 서비스 아이디어를 응모해 지난해 11월 제8회 대한민국 대학생 벤처창업 경진대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상을 타면서 상금 1천만원을 받았다. 상금을 사업 지원금으로 해서 '프로그램(%g)'이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창업 동아리 지원금까지 받았다. 대표 박미영 씨는 최근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제1회 청년 기업인의 날'에서 촉망 받는 12인의 청년 기업가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실타래'는 블로그 위에 붙이는 크리스마스 실(Seal)과 같은 아이콘을 말한다. 기부나 콘서트 등 관심 있는 주제의 아이콘 실을 블로그 대문에 걸어두면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그와 관련된 마니아 블로그로 이동할 수 있다.

조민지 씨는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좋아하는 일을 하니 행복하다"며 "현재 창업 매출은 얼마 되지 않지만 앞으로 더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미영 대표는 "창업을 준비하는 20대라면 성공과 실패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2년 반 정도는 꾹 참고 도전하면 어떤 식으로든 소중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이란 위기를 '창업'이란 기회로 도전하는 청년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9년 9월 기준 신설 회사는 4만2천 개로 지난해에 비해 6.1 퍼센트 증가했다. 이 중에서 20대 청년이 설립한 신설 회사는 지난해에 비해 16.2 퍼센트나 증가해 다른 세대들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청년창업이 활발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건다는 점이다. 기성 세대에 비해 자금력과 사회 경험은 부족하지만 소비시장의 변화를 꿰뚫고 개성 있는 아이템에 도전하는 돌파력이 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 서울시 창업박람회에서도 청년들의 독특한 창업 아이템이 주목받았다. 수험생 슈즈, 피아노레슨 로봇, 현수막 활용가방 등 일상 속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상업화해 내놓은 것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예비 청년 창업자들이 제대로 된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창업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소비 트렌드를 잘 살펴야 한다. 또한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하는 데 있어 필요한 운영 방법, 인건비 등의 사업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창업 전선에 뛰어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구현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먼저 서울시가 진행하는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갖고 있음에도 경험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창업을 미루고 있는 20, 30대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 2차에 걸친 심사를 통과한 1천명의 예비 창업자들을 선발해 강북과 강남에 위치한 청년창업센터에

입소시켰다. 이들은 내년 2010년 6월 말까지 1년간 무료로 사무실을 사용하며 창업 아이템 개발 및 활동비로 매달 70만~1백만원씩 지원받는다.

또한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 능력을 높이기 위해 창업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모두 4단계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토론식 수업이라는 점이다. 수업마다 예비 창업자들의 사례 발표를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전문가의 조언이 더해져 창업에 대한 자생력을 키워가고 있다.

최항도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젊은 창업 기업가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등 제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 · 개성 있는 아이템으로 시장 돌파

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이 프로그램은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든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7월 말 문화 콘텐츠 및 관련 기술 개발,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멀티 유즈를 고려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 37개가 전문 심사단의 꼼꼼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 아이디어들은 콘텐츠 제작 및 기술 개발, 저작권 등록 및 거래, 시장조사, 창업교육, 마케팅 및 유통 등 일련의 사업화를 지원받고 있다. 지원 결과 사업성이 인정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 및 관련 기업과의 거래, 유통, 마케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20대 청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창업 지원금을 지원하고 창업 관련 서비스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처음 창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다양한 청년창업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교수, 연구원, 대학생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기술 창업을 창업 단계에서부터 돕는 '실험실창업 지원사업'이 있다. 올해 6백50명에게 1백80억원을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투명유리 LED 조명장치, 뉴로 피드백 시스템을 이용한 신 뇌파측정기 등 한국 산업기술의 상업화를 돕는 창업 프로그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창업 준비 및 창업 초기단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좀 더 안정적인 연구개발에 힘쓰도록 도와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실타래'라는 웹 서비스 아이디어로 창업에 성공한 건국대 동아리 '걸작'처럼 사업화 역량을 갖춘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창업 동아리에게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올해에는 1백20개 창업 동아리에 최소 3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형영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장은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대 청년들이 자랑스러운 청년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청년창업 지원금 어디서 주나?

이름	주관	한도	접수	내용	연락처
실험실 창업 지원금	중소기업청	2천7백만원	매년 공지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마케팅 비용 등 지원	042-481-8921
Hi Seoul 대학생 창업 지원금	서울산업통상진흥원	1천8백만원	매년 공지	우수 신기술 견학 및 창업 컨설팅 진단 · 지도	02-2657-5712
소셜벤처 경연대회	노동부	3천만원	매년 공지	최종 대회 입상자 최고 3천만원, 초기 사업비 지원, 창업자금 대부	02-6902-8473
뉴미디어 창업 경진대회	한국콘텐츠진흥원	3천만원	매년 공지	전문가들이 아이템 시장 진입 가능성 및 현실성 평가	02-3153-1114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어디서 하나?

이름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지원 내용	문의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아이디어 및 전문지식 보유한 1인 창조기업가	2009년 4~12월	멘터링 프로그램 및 자기계발 골드카드 지급	중소기업청 중소서비스기업과 042-481-4552
기술창업학교	기술력 보유한 예비 창업자	매년 2월 초~3월 중순	모집창업자금 지원 및 컨설팅 연계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8904
신기술 창업인턴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매년 1~2월	정부지원금은 전체 사업 7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4429
창업동아리 지원	대학총장, 산학협력단장 등의 추천을 받은 대학생 창업 동아리 또는 고교 창업 동아리	매년 2~3월	창업 동아리의 아이템을 평가, 선정해 3백만~5백만원 차등 지원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8904
창업 경진대회	창업 아이디어 및 아이템을 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	매년 2~3월	상금 및 창업 컨설팅, 창업교육, 해외 연수 등 지원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8920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사회적 기업가	매년 상반기	소셜벤처 경연대회 실시, 창업자금 대부 등	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2-2110-7174

급변하는 창업시장 트렌드 철저히 살피자

열정과 아이디어만 있다면 청년실업 대란 속에서도 청년 사업가로 우뚝 설 수 있다. 철저한 계획과 그에 따른 실천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점에 대해 살폈다.



일러스트 · 남동윤

최근 들어 젊은이들의 고용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20, 30대의 '청년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청년창업의 경우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획기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창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따르고 창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이 미흡해 실패로 이어지기 쉽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다. 대학이나 청년창업 관련 교육전문기관들이 다양한 창업 관련 강좌를 진행하고 있고, 전국 각 지자체들도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창업에 필요한 각종 교육 및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정부나 기타 기관에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혼자 창업을 하기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창업 시도자 10명 중 2명 정도만 성공하고 있을 정도다.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20퍼센트 미만인 것이다.

창업에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바로 철저한 창업 계획과 창업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실천력이다. 창업은 넉넉한 자본금만 있으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돈보다는 창업자의 꾸준한 노력과 지식 습득이 성공을 좌우한다.

또 한 가지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혼자만의 기술이나 경험을 토대로 창업하는 1인 창업의 경우 창업을 하기 전 다양한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필수 점검사항 및 지식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고 시작해야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급변하는 창업시장의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최대 고민은 창업자금… 정부기관 지원 등 살펴야

앞서 언급했듯이 청년 창업자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는 창업자금의 조달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각종 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해 획득한 상금을 창업자금으로 활용하는 것과 창업 관련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을 지원받는 것이다. 이는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있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해줄 뿐 아니라 창업 아이템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앞으로 창업시장은 소비기호 변화에 따른 아이템 다양화와 세계화 조류가 큰 흐름을 형성할 전망이다. 청년창업의 경우 기존 창업 아이템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업시장에 대한 정확한 흐름 파악과 함께 고객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지해야만 치열한 창업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G

글 · 이상헌(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청년창업 성공의 키포인트 10

1 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을 검토하지 마라.
2 안 되면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라.
3 자본의 규모보다 기술 · 노동 지향적으로 승부하라.
4 단기간에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기대하지 마라.
5 장사보다 사업을 목적으로 준비하고 시작하라.
6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
7 창업을 직장생활처럼 해야 성공한다.
8 고정적인 사고방식보다는 유동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9 정확한 사업계획서는 필수다.
10 창업하려는 아이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라.

소셜벤처 경연대회 최종 14개 팀 수상

“정부 지원 받아 취약계층 돕습니다”

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진행해온 ‘2009 소셜벤처 전국 경연대회’의 최종 수상자로 ‘공신’ ‘한울’ 등 14개 팀을 선정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들 소셜벤처는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취약계층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재활용품을 수거 판매하는 ‘아름다운 가게’, 정신지체장애인이 우리밀 과자를 생산하는 ‘위캔’, 페타이어 등 재활용품을 활용해 만든 악기로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하는 ‘노리단’, 컴퓨터 재활용기업 ‘컴윈’, 친환경 건물청소업체 ‘함께일하는세상’, 장애인 모자생산업체 ‘동천모자’ 등은 우리 사회를 밝고 훈훈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이다.

이 같은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아이디어 발굴을 돕는 ‘2009 소셜벤처 전국 경연대회’가 11월 5일 개최됐다. 소셜벤처(Social Venture)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모델을 말한다.

노동부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1차 본선 진출팀을 대상으로 이날 전국 경연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서는 결선에 진출한 42개 팀의 파워포인트(PT) 공개심사를 통해 창업 부문 7개 팀과 아이디어 부문 7개 팀을 최종 선발했다.

이들 14개 팀은 4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시상대에 올랐다. 창업 부문 대상은 공교육에서 소외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온·오프라인 멘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신(功神)’이 차지했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기부 투자자들의 기부금과 포인트를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사회적 증권거래소를 아이템으로 내놓은 ‘한울’이 수상했다.

‘공신’ 팀의 강성태(26) 대표는 수상 소감을 묻자 “결선까지 올라온 것도 영광인데 수상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기대해주신 만큼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만들고 해당 상품도 개발

‘한울’ 팀 김제성(24) 대표는 “가장 오랫동안 준비한 대회여서 그런지 감회가 남달랐다. 앞으로 계속 자기계발에 힘써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창업 부문 최우수상은 봉제 노동자의 디자인 파워를 활용해 청년 디자이너의 실업을 해소하는 ‘오르그닷’과 폐현수막 등을 재활용한 패션잡화를 만들어 팔고 환경개선 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하는 ‘Touch4Good’이 받았다. 이주여성들의 치유와 자립을 위해 문화색을 살린 수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에

창업 부문 대상 | 서울 ‘공신’ 팀 강성태 대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돕는 멘터 될 것”



공부의 신을 일컫는 ‘공신(功神)’은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교육 수준을 결정하는 대한민국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소셜벤처다. 공신의 강성태 대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멘터링, 출판 등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멘터가 되어주고, 이로써 공교육을 보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대회의 창업 부문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을 시작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공신은 과거 학습에 고민을 갖는 후배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도움을 주는 대학생 연합동아리였습니다. 동아리로서 공신은 사이트 운영, 출판, 방송출연, 멘터링, 강연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공신 멘터링을 통해 자신감을 찾고 성적이 향상되고 인생이 바뀌는 학생들을 봤습니다. 이 멘터링을 체계적으로 전국에 확대시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 우리의 가능성과 역량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과거에도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대회를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준비했습니까.

이번 대회를 통해 처음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왕성하게 멘터링 활동을 하고 있고, 온라인 사이트 운영과 매거진 발간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이 중에서 집중해야 할 핵심을 추려내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회 때는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짧은 시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밤낮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바쁘게 보냈지만 그런 힘겨운 과정을 기꺼이 함께해준 동료들이 있어 든든했습니다.



소셜벤처 전국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서울 '공신' 등 14개 팀은 노동부장관상과 상금 외에도 다양한 창업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코팜므', 정신질환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Good Start', 친환경 대안여행을 주도하는 '착한여행',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해 친환경 채소 재배 시스템을 구축한 '사회적기업과 고용관계연구소'는 우수상을 안았다.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반디플러스'와 'Happy新思'가 최우수상 수상의 기쁨을 맛봤다. 반디플러스는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봉사자들이 영어 연극을 교육하는 아이디어를, Happy新思는 기부 자판기로 모은 기부금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우수상은 장애인을 위한 여행사업 아이템을 선보인 'Tra-Ins', 농가를 리뉴얼해 다양한 인종이 모이는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낸 'MOSAIC', 고비용·저효율의 결혼 문화에서 소외되는 저소득층의 결혼식을 기획한 '유앤아이네트웍스', 전남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여행 기업을 구체화한 'Juna Tour'에 돌아갔다.

전국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이들 14개 팀에는 노동부장관상과 함께 최고 3천만원의 상금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또한 창업 부문 입상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초기사업비 지원과 최고 2억원의 창업자금 대부 등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창업 초기단계의 소셜벤처가 원활히 창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최고 3천만원 상금과 창업자금 대부 등 추가 지원도

또한 사회적 가치가 높은 3개 팀에 대해서는 이번 대회의 후원기관인 SK에서 추가로 혁신상을 시상했다. 그 주인공은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가구매장인 '되살림 공간', 고학력 중증장애인에게 iBT 기반의 영어 학습을 지원하는 '희망 돋움', 학생들의 교복을 회수해 상품화한 후 사회취약계층에 대여하는 '구쿨'이다.

SK는 이번 대회 입상 팀들의 '세계 소셜벤처 경연대회(GSVC · Global Social Venture Competition)' 출전 준비를 돕는 한편 이들에게 해외 사회적기업을 돌아볼 수 있는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우리 사회를 멋지게 변화시킬 사회적기업가들의 꿈을 이뤄주고 사회적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아이디어 부문 대상 | 부산 '한울' 팀 김제성 대표

"사회적 증권거래소로 발전시키는 게 최종 목표"



부산대 경제학과 학생들이 주축이 된 '한울'은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인 BMX(Beautiful Mind Exchange)를 아이디어로 냈다. BMX는 기부 투자자들의 기부금 및 포인트가 엄선된 예비 사회적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내 사회적기업의 질적, 양적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증권거래소로 발전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다.

BMX를 언제부터 구상해왔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회책임투자(SRI) 기금 및 펀드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자본금 및 기업특성상 자본시장에 상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SRI 펀드는 자본 유입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만을 위한 자본시장을 만들게 된다면 사회적기업이 자본조달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이 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울'이라는 팀명의 의미는.

한울은 '세상을 바꾸는 한 방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열정의 땀방울, 눈물을 흘려서 반드시 뜻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고자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대회가 팀 발전에 도움이 됐습니까.

이번 대회는 한울은 물론 팀원 개개인에게도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한울은 세상을 바꾸는 한 방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대회 준비로 고생한 모든 팀원과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해주신 교수님, 자료 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신 사회적기업연구소 연구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서 30년… 탱화 작가 브라이언 배리

"징허게 받은 사랑 거시기 해서…"

최초로 한국 해외 홍보물을 만든 홍보 전문가, 성철 스님 법어집 〈이 뭐꼬〉의 번역가, 대한불교조계종 최초의 외국인 포교사, 서울 예술의전당 한국종교미술전 초대작가…. 한국문화에 푹 빠져 30여 년을 바친 브라이언 배리 씨는 요즘 외국 사찰에 탱화를 그려 기증하면서도 그동안 한국에서 '징허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것뿐이라고 겸손해한다.



미국의 한 사찰에 기증할 동진보살 탱화를 그리고 있는 브라이언 배리 씨. 꼬박 석 달이 걸리는 탱화를 무상으로 공양할 예정이다.

브라이언 배리(64) 씨는 지난 10월 중순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문화훈장은 정부가 문화예술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영예다.

배리 씨는 일반인들에게는 낯설지만, 한국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유명 인사다. 대원정사 불교대학을 졸업한 1987년 연등국제불교회관을 창설했는가 하면, 대한불교조계종 최초로 외국인 포교사 자격증을 얻어 국제 포교에 힘썼다. 외국인이 한국 불교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 작업도 꾸준히 했다. 성철 스님의 법어집 〈이 뭐꼬〉 〈자기를 바로 봅시다〉, 일타스님의 〈생활 속 기도법〉 등 20여 권의 불교서적을 번역 출간했다. 또 통도사 성보문화재연구소가 펴낸 〈한국 불화집〉 시리즈 40권에 영문 해설을 넣는 데 10년 정성을 들였다. 올해 말에는 법정스님의 수필집 〈물소리 바람소리〉를 간추려 영역한 책이 미국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그는 탱화(幀畵 · 불교의 신앙대상이 되는 부처, 보살, 성현들을 그려서 벽에 거는 그림)를 그리는 작가로도 유명하다. 서울 봉원사에서 불교미술의 거장이자 중요 무형문화재인 만봉스님을 사사한 지 25년째. 그는 서양식의 탱화 작가보다는 '불모(佛母)'가 맞다고 말한다.

해외 사찰에 탱화 기증… "신나서 하는 일이죠"

"탱화를 그리는 맨 마지막 단계가 점안(點眼)이에요. 불교 전통에 따르면 한낱 그림일 뿐이던 도상이 점안을 통해 육화된다고 믿습니다. 어머니가 아기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붓다와 보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니 불모(佛母)가 맞죠."

해외로까지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때는 1999년 말. 태국 방콕의 왕실사원인 왓 수탓(Wat Suthat)에서 단청 문양을 그리는 모습이 〈CNN〉에 보도됐다. 외국인 불화 작가가 왕실사원에 초청돼 단청을 한 것은 태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미국에 계신 형님한테서 방송을 봤다고 전화가 왔어요. 영어로 인터뷰하는데 자꾸 '거시기' 소리가 들리길래 거시기가 절 이름인 줄 알았다네요."

한국에서 살아온 지 30여 년. 자신도 모르게 입에 밴 '거시기' 소리가 영어 사이에 추임새처럼 자꾸 끼어들었던 것이다. 그의 말 속에는 거시기 말고도 '겁나게, 징허게, 매겁시, 궁게' 가 툭툭 튀어나온다. 자칭 '부안 부씨'가 구사하는, 영락없는 전북 사투리다. 전북 사

투리는 '사나우면서도 정겹고, 어머니가 푸근하게 안아주는' 것마냥 좋단다. 그건 한국과의 첫 인연이 전북 부안 땅이기 때문이다.

1967년 스물네 살 때 미국의 평화봉사단원으로 부안에서 2년 동안 일하면서 묵었던 시골 하숙집 주인한테서 막내아들 대접을 받았다. 배리 씨도 그들을 평생 어머니, 아버지로 모셨다. 지금 배리 씨 집에는 미국인 부모와 한국인 부모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다.

제주를 거쳐 2년 반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가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지만, 1년을 채 못 버텼다. 양복에 넥타이 매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그의 표현대로 '꽹매기(꽹과리의 사투리) 소리와 홍어 냄새가 자꾸 땡기고, 검정 고무신 차림과 막걸리가 그리웠다'. 그래서 1970년 평화봉사단 교육위원 부단장을 자청해 한국에 나오던 길로 눌러 앉았다.

1980년대에는 김병섭 씨가 이끄는 '호남우도굿'의 무쇠로 전국을 누볐다. 화랑춤, 탈춤…, 배우는 춤마다 춤사위가 한국 사람처럼 그럴싸했다. 순전히 좋아서 따라다녔지, 생업은 따로 있었다. 대우그룹 회장실 소속 해외 홍보실에서 70년대 말부터 90년대 말까지 일한 것이다. 한국 정부의 해외 홍보물도 꽤 많이 그를 거쳤다. 영어와 한국문화에 정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탱화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86년. 외국인을 통역하기 위해 봉원사에 들렀다가 만봉 스님의 탱화를 보자마자 그동안 찾던 게 이거다, 싶더란다.

"꽹매기다, 탈춤이다, 불교 공부다, 20년 동안 찌개를 하나씩 끓였는데, 탱화야말로 거시기 내가 그동안 해온 일의 섞어찌개다, 싶데요. 아, 이 일을 하려고 돌아다녔구나 했어요."

그가 보기에 한국의 탱화는 다른 나라 탱화보다 '정교하고 이쁘고 멋있다'. 인도에서 비롯돼 중국을 거쳐 한국에 왔지만, 한국의 고유한 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붓 잡는 법도 모르던 그가 만봉 스님 아래서 10년을 배웠다. 입문은 시왕초(十王草·저승에서 죄를 가늠하는 신의 밑그림) 3천 장 그리기였다.



"브라이언 배리 씨는 〈Weekly 공감〉 독자에게 차를 따라 올리고 싶다고 했다."

"처음엔 하루에 두 장 그리기도 힘들어요. 천 장을 간신히 그려서 사부님께 보여드리니 하품을 하시면서 '천 장 더!' 하시는 거예요. 천 장을 더 그리니 '길이 들었구만, 천장 더' 하시데요."

2년 걸려 3천 장을 완성했다. 다른 사람들은 1천 장만 그리고도 채색을 시작하는데, 밑그림만 3천 장 채우게 한 걸 나중에 생각해보니 "징그럽게 큰 선물을 준 거"였다. 사부님이 2006년 입적하신 후에야 그 마음을 알았다. 그의 홈페이지(bbbudart. com)에는 만봉 스님 일화가 소개돼 있다.

"사부님은 참으로 겸손한 분입니다. 인간문화재로 전국의 유명한 사찰에 탱화 불사를 안 하신 데가 없고, 은관문화훈장을 받을 만큼 추앙을 받으셨으면서도 으스대는 일이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절을 하면 맞절을 하시고, 죽은 고양이를 위해 49재를 지내줄 만큼 자비로운 분입니다. 탱화 불사로 받은 돈도 절에 기탁하셨습니다."

배리 씨가 탱화를 한 장 완성하는 데는 적어도 석 달이 걸린다. 바닥에 팔꿈치를 대고 엎드린 채 단전으로 호흡을 가다듬으며 온 마음을 붓 끝에 집중하는 몰아지경의 과정은 그 자체로 도를 닦는 수행 과정이다.

한국 최초로 문화예술 영주권 받아

그는 탱화를 해외 사찰에 무료로 기증해왔다. 자신의 고향인 미국 보스턴시의 문수사, 숭산 스님이 건립한 케임브리지 젠 센터에 탱화를 기증했다. 디트로이트, 모스크바, 싱가포르 등지의 사찰에도 그의 탱화가 걸려 있다. 겨울 한 철 석 달 꼬박 매달린 태국 왕실사원 단청도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지금도 미국의 한 사찰에 기증할 탱화를 조성 중이다.

"신나서 하는데 돈을 받다니요. 한국에서 징허게 받은 사랑, 사부님께 받은 은덕을 갚는 것뿐입니다."

전생에 백제 사람이었을 거라고 너털웃음을 웃는 배리 씨. 2년 전 한국에서는 최초로 문화예술영주권을 받은 그는 서울 북한산 자락의 작은 집 거실에 '관음굴'이라는 표지를 걸고, 자신이 그린 관세음보살을 모신 채 탱화 불사에 몰두하고 있다. G



배리 씨는 성철 스님의 법문집인 〈이 뭐꼬〉의 영역판 〈Opening the Eye〉, 〈한국 불화집〉 등 60여 권을 번역 출간했다.

글 · 최은숙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로이터

올봄 영화 〈말리와 나〉 홍보를 위해 독일을 방문한 제니퍼 애니스턴(왼쪽)과 오언 윌슨. 두 스타는 친환경 실천가이기도 하다.

샤워는 3분 이내 재활용품 분리수거 척척

스타 12인의 녹색생활 실천 사례 담은 〈그린북〉

캐머런 디아즈, 제니퍼 애니스턴, 로버트 레드포드, 저스틴 팀버레이크, 마사 스튜어트….
미국 유명 스타들의 지구 살리기 방법은 거창하지 않다. 우리도 지금 바로 집 안팎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행동 지침들이다.

“3분 이내에 샤워를 마친다. 샤워하면서 양치질도 함께 한다. 내가 2분 동안 샤워하는 데 쓰는 물의 양이 아프리카에서 한 사람이 세탁하고, 씻고, 요리하는 등 하루 종일 쓰는 모든 물의 양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샤워 시간을 더 줄이려고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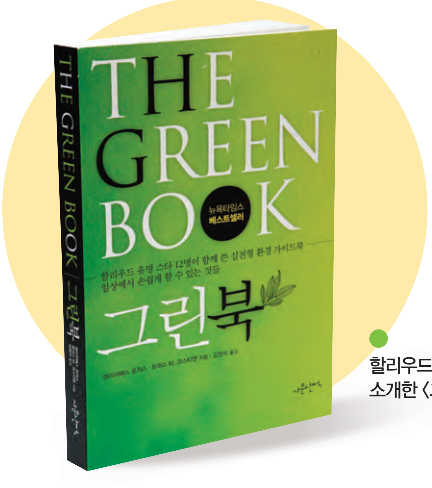
인기 시트콤 ‘프렌즈’에서 레이첼 그린 역으로 유명한 배우 제니퍼 애니스턴의 일상 속 녹색생활 사례다. 할리우드 스타들 12인의 친환경 생활을 소개한 〈그린북〉(사문난적 펴냄)은 거창한 환경운동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누구나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 요령을 담고 있다.

슈퍼 모델이자 가수로 지난해 미국의 에미상 토크쇼 진행자상을 받은 타이라 뱅크스도 제니퍼 애니스턴처럼 샤워를 짧은 시간에 끝낸다. 양치질을 할 때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집을 비울 때는 불을 끈다. ‘사소한 일들이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습관을 바꿔놓기도 한다. 에미상에서 토크쇼 진행자상을 12번이나 받은 앨런 드제너러스는 폐식용유 한 방울도 부엌 개수대에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 자동차 기름 한 방울도 통에 담아 재활용센터로 가져가는 등 하수구에 스며들지 않도록 조심한다. 북미 대양에 유입되는 1억1천만 리터의 기름 중 9천1백만 리터의 막대한 양이 유조선 유출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사람들이 흘려보낸 폐기름이라는 사실을 안 이후부터다.

앨런 드제너러스 “폐식용유 한 방울도 그냥 버리지 않아요”

지난해 말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뽑은 할리우드 스타 커플 고소득자 순위 중 넷째인 컨트리 가수 페이스 힐과 팀 맥그로 부부는 재활용 도사다. 종이 상자를 뜯어내고, 우유병을 씻어서 분리한다. 우유병과 캔도 따로 담는다. 집안에 재활용품이 굴러다닐 틈이 없다. “재활용은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데도 유용하다”고 부부는 말한다.



할리우드 스타 12인의 친환경 생활을 소개한 〈그린북〉.


소니비엠지


AP


AFP


AP

〈그린북〉에 소개된
저스틴 팀버레이크,
로버트 레드포드,
타이라 뱅크스,
마사 스튜어트(왼쪽부터).

설마 환경보호와 관련이 있을까 싶은 일이 지구를 살리는 길이라고 권하는 스타도 있다. 전 뉴욕 자이언츠 미식축구 선수이자 스포츠방송 인기 해설자인 티키 바버는 몸짱이 되기 위한 운동 역시 지구에 유익한 일이라고 말한다.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역기 들기 등 어떤 종목이든 운동을 오래 할수록 지구가 건강해집니다. 운동하는 시간 동안 자동차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제품을 덜 사용하니까요."

영화 〈말리와 나〉의 주연 배우 오언 윌슨은 우연히 하이브리드 차를 몰면서부터 친환경에 발을 들였다. 환경운동가로 잰 체하기 싫었던 오언은 하이브리드 차를 몰면서도 주변에 친환경 운운하지 않았다. 그러다 차츰 친환경 생활에 발을 들였다. 재활용 종이 타월을 사용하고 유기농 식품을 구입하는가 하면 급기야 집에 태양열 집열판까지 설치했다. 지금은 자신의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까지 우려하는 적극적 실천가로 변신했다.

친환경 습관을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받아 실천하는 스타들도 있다. 영화 〈슈렉〉 시리즈에서 피요나 공주의 목소리로 친숙한 캐머런 디아즈는 '한 번도 환경운동에 참여한 적이 없는 이기적 미국인일 뿐'이지만 할머니에게 어린 시절부터 녹색생활 습관을 물려받았다고 말한다.

"할머니의 삶은 진실로 환경친화적이었어요. 뒤뜰에서 가축을 기르고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셨어요. 은박지와 비닐봉지를 다시 사용하고, 고기 요리를 할 때 나오는 지방으로 비누도 만드셨죠. 땅에서 얻은 것은 전부 땅으로 돌려주는 게 할머니의 삶이었고 제게 그런 삶의 방식을 물려주셨습니다. 저도 거의 모든 것을 재활용하며 하이브리드 차를 몰고 있어요."

슈퍼 모델 타이라 뱅크스는 양치질을 할 때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집을 비울 때는 불을 끈다. '사소한 일들이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살림의 여왕' 마사 스튜어트도 친환경의 유산을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함께 뉴저지의 농장에서 재배한 제철 음식으로 싱싱한 식탁을 즐겼다. 성인이 된 후에도 옛날처럼 농장에서 유기농으로 채소를 재배한다. 농장에는 먹고 남은 음식물, 깎아낸 풀, 말 배설물 등을 섞어 만든 천연 비료가 가득하다. 새 닭장을 만들 때는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과 낡은 널빤지를 재활용했다.

그의 집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다. 겨울철에는 덧창을 닫아 바람을 막는다. 방바닥에는 난방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공기를 데우는 라디에이터식보다 난방비가 적게 든다. 백열전구 대신 절전형 형광등으로 전기세를 줄이고 에어컨을 계속 돌리는 대신 선풍기로 냉방비를 줄인다.

마사 스튜어트 "에어컨 대신 선풍기로 여름 나요"

〈흐르는 강물처럼〉 〈퀴즈쇼〉 등에서 영화배우와 감독으로 종횡무진 활동하는 로버트 레드포드는 환경운동가로 한발 더 나아갔다. 최근 자신의 집 뒤뜰을 지나갈 예정인 6차선 고속도로 계획을 반대하는 활동가로 나서 그 계획을 저지시켰다.

"고속도로가 유타 협곡을 가로지르게 되면 자연을 영원히 황폐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내 아이들이 숨 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을 오염시킬 게 뻔합니다. 나는 이 계획을 막기 위해 지역 활동가들과 연계했고 지역민들도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포드는 환경보호와 지구온난화 문제는 민주당원이냐 공화당원이냐 하는 정치적 이해관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환경문제는 특정 정파에 쏠린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사람들이 세계를 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 5인조 남성 그룹 엔싱크 출신의 싱어송 라이터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환경문제에 새롭게 눈을 떴다. 지구온난화가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 지역에 가뭄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알리는 앨범을 만들고 순회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그린북〉에 소개된 이런 사례들이 할리우드 스타들을 다룬 가십에 그치는 것일까. 최승호 시인은 "이 책은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담은 실천형 가이드북이다. 친숙한 스타들의 사례를 통해 환경문제와 녹색운동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것이 이 책의 매력"이라며 추천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장애인 돕는 '경찰관 사진작가' 최태희 경위

"프레임 속 작은 행복 장애인 학생들과 나누고 싶어요"

최태희 경위는 좀 특별한 경찰관이다. 경찰서 내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경찰관 사진작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시로 사진전에 공모해 최근 5백 회 수상 기념 전시회도 열고 있다.
전시회 수익금으로 사진을 좋아하는 장애인들을 돕는다는 그의 특별한 사진 사랑을 들었다.



조영철 기자

사진공모전 5백 회 수상을 기념해 전시회를 연 최태희 경위는 이번 전시 수익금을 그가 사진을 가르치는 장애인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서울 수서경찰서 수서파출소 소속 최태희(54) 경위는 경찰관 사진작가다. 개인 사진전만 다섯 차례 개최하고 사진 교본도 냈다. 그런 그가 11월 19일까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자신의 공모전 입상작 1백6점을 모아 '공모전 5백 회 수상 기념 자선전시회'를 열고 있다. 서울 남산타워의 야경, 억새가 우거진 가을 들판 등 도시와 자연의 풍광을 담은 그의 수상작들은 작품당 5만원에 판매되며, 수익금은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만난 최 경위는 "한 달에 한 번 이곳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진 강의를 하고 있다"며 "강의에 열중하는 장애인들을 보고 있자니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애인 10여 명을 모아놓고 사진 이론과 실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와, 정말 잘 나왔다'며 감탄할 때마다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을 판 수익금으로 이분들께 좋은 카메라를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크고 작은 공모전에서 입상한 경력만 5백여 차례에 이르는 최 경위는 이미 경찰 내에서는 '스타'로 통한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청사 복도에 걸려 있는 서울 풍경 사진 가운데 절반가량이 최 경위의 작품이며, 서울경찰청장 접견실에 걸려 있는 파노라마 사진도 그가 찍은 것이라고 한다. 그는 또 경찰기동대원으로 근무할 당시 벽제경찰수련원에 입소한 전·의경 3만여 명의 인사기록카드용 증명사진을 도맡아 찍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렌즈에 담은 역사적 순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최 경위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먹고살기 위해 경기 양평군의 청운고등학교 앞에 사진인화소를 차리고 학생들의 운동회 사진이나 졸업식, 소풍 사진 등을 찍어주며 사진기술을 터득했다. 이후 36세의 늦은 나이에 순경 특채로 경찰에 입문한 최 경위는 기동대에서 근무하며 취미 삼아 대원들의 사진을 찍어주던 중 1993년 설 연휴에 뜻깊은 사진 한 장을 찍게 됐다. 한 전경대원이 고속버스에서 내리는 노부부를 부축해주는 모습을 보고 셔터를 눌렀는데 이 사진이 사진공모전에서 입상한 것. 이를 계기로 최 경위는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해 16년 동안 각종 공모전을 휩쓸어 약 1억1천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최 경위는 "맨 처음 사진공모전에 출품할 때 '5백 회 수상이 목표'라고 주변에 허풍처럼 말했는데, 목표를 이루고 나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사진에 미친 최 경위지만 본연의 업무에 소홀한 적은 없었다. 장기를 살려 경찰업무에 활용한 결과 세 차례 특진했으며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63차례 표창을 받았다. 최 경위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이만한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 스스로 만족한다"며 "좋아하는 일에 미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부터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현장 등 사건 사고 현장에서 수없이 셔터를 눌렀지만 경찰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발표하지 못한 사진이 많아요. 렌즈에 담은 역사적 순간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G

글 · 김승욱(연합뉴스 사회부 기자)


4대강
살리기
제 30 화
글·이연수 그림·이호
젊은 아들이 와 그리 비실대노?
요 아래 절벽 보면 중생대 지층이 다 있다.
원래 여기가 길도 부실하고 해서 필드 트립(field trip) 오기 힘들었다 아이가.
사강나래(4대강 살리기 사업)로 지질탐사 자전거길 생겨서 이렇게 쉽게 오게 되니 얼마나 좋노?
쉽게?
쉽게?
쉽게?
저기 아래가 백악기 후기 공룡 화석 발견한 곳이다. 내려가자!
아악 교수님….
쉬었다 가면 안 됩니꺼?
죽겠어예.
귀엽네.
근데 와 저리 고생이고?
다 우리 발자국이니 뼛조각이니 찾겠다고 저러는 거 아이가.
앞으로 지질탐사 오는 학생들 구경하느라 심심치는 않겠다.
하모. 사강나래 덕분이제.



한식 메뉴의 영문 표기 표준안에 따르면 한정식은 'Traditional Korean Set Menus'다.

Gimchi➡Kimchi

헷갈리는 한식 메뉴 외국어 표기 통일

한정식은 Han-Fixed meal, 칼국수는 Knife-cut Noodle? 앞으로는 외국인이 한식 메뉴판을 보며 머리를 갸웃거릴 일은 사라질 것 같다.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식 메뉴 1백24가지의 외국어 표기 표준안이 나왔다.

칼국수(Knife-cut Noodle), 한정식(Han-Fixed meal), 김치(Gimchi 또는 Kimchi), 떡국(Cake Soup 또는 Rice Pasta Soup)…. 한식 메뉴를 영어로 잘못 표기하거나 혼용 표기한 사례들이다.

외국인이 한식 메뉴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식 메뉴 외국어 표준 표기안이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 한식세계화추진팀은 '알기 쉬운 한식 프로젝트'의 하나로 외국어 표준 표기안을 마련, 11월 말부터 국내외 한식당 및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한국식품 포털 사이트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1차로 외국인이 선호하는 한식 메뉴 1백24가지가 발표됐으며, 해당 메뉴는 국내외 한식당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됐다. 외국어 표기안에는 음식의 사진과 함께 명칭, 주 재료, 조리법, 곁들여 먹는 국이나 양념장 등이 설명돼 있다. 메뉴는 밥, 죽, 면, 국, 찌개, 전골, 찜, 나물류, 조림 등 20가지로 분류돼 있으며, 각각 1~15가지 품목이 표기 대상이다.

124가지 명칭 통일하고 재료와 설명 병기도

예를 들어 김밥의 경우 기존 로마자 표기를 Gimbap 또는 Kimbap으로 하던 것을 Gimbap으로 통일했다. 메뉴 명칭은 Dried Seaweed Rolls로 음식의 모양과 특징을 반영했으며,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설명을 덧붙였다.

칼국수는 Kalguksu로 표기하고, 'Noodle Soup'이라는 명칭을 병기했다. 메뉴 설명에는 '흰 밀가루면, 호박, 감자를 넣어 만든 스프로, 조미 간장 소스를 곁들일 수 있다'고 식재료와 먹는 방법을 담았다. 한정식은 Hanjeongsik으로 표기하고, 'Traditional Korean Set Menus'라는 명칭을 병기한다. 이들 표기안은 현지 사정에 따라 영어 외에도 일본어, 중국어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일본어 표기의 경우 발음 그대로 가타카나 및 일문 설명, 중국어 표기의 경우 간체자 중문 명칭 및 중문 설명을 나란히 표기한다.

이 작업에는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앞으로 한식 메뉴의 외국어 표준 표기안은 불어, 스페인어로도 개발될 계획이다. G

글 · 최은숙 기자

● 한식 메뉴 영문 표기의 예



비빔밥

bibimbap

Rice Mixed with Vegetables and Beef

Rice topped with various cooked vegetables, such as zucchini, mushrooms and bean sprouts, plus beef and a fried egg. Served with red chili paste, which should be mixed in thoroughly.



삼계탕

samgyetang

Ginseng Chicken Soup

Whole young chicken stuffed with ginseng, sticky rice, Korean dates and garlic. It is widely recognized as an energy-boosting meal during summer.


동아DB

흰 분말 섞인 고춧가루 · 시든 잎 배추는 NO!

신선한 김장재료 이렇게 고르세요

맛있는 김장을 담그려면 무엇보다 좋은 재료를 써야 하지만
이를 한눈에 식별하기란 쉽지 않다.
소비자들의 이러한 고충을 덜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마련한
'신선하고 안전한 김장 재료 고르는 법'을 꼼꼼히 살펴봤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주부 최영미 씨는 최근 김장에 쓸 고춧가루를 구하기 위해 충남 홍성까지 다녀왔다. 얼마 전 중국산 파프리카 색소를 넣은 다진 양념가루가 국산 고춧가루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뉴스에서 접하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주부들이 김장 재료를 구하기 위해 산지를 찾는 일이 잦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부들의 이러한 수고를 덜기 위해 김장 재료를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알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고춧가루는 먼저 전분, 식염 등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분말 상태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고춧가루에 흰 분말이 섞여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는 상한 상태로 말려 희끗희끗하게 얼룩진 고추인 희아리로 고춧가루의 원료로 사용될 수 없다. 포장에 손상이 있거나 곰팡이 등의 이물질로 인해 변색된 고춧가루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최적의 보관 온도는 15~25도 이하다.

젓갈류는 용기에 손상이 없고 액상이 균일하며 상온에서 보관된 제품을 골라야 한다. 제조업체와 소재지는 물론 새우, 멸치 등 젓갈 원료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실제 젓갈을 제조하고 가공한 나라와 원산지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안전한 김장 재료 유통 위해 합동 단속 실시도

또한 젓갈류는 종류별로 나트륨 함량이 다르다. 김장에 주로 쓰이는 멸치액젓에는 평균적으로 1백 그램당 5천7백10밀리그램, 새우젓엔 1백 그램당 6천5백5밀리그램의 나트륨이 들어 있으므로 적정량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나트륨 권고량은 하루 2천 밀리그램이다.

배추를 고를 때는 잎이 시들거나 마른 것은 피해야 한다. 병충해를 입었거나 벌레, 흙, 금속 등의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지도 잘 살펴야 한다. 배추는 속이 꽉 채워져 있고 잎이 청결하며 겉잎의 상한 부분이 적은 것, 양손으로 만져보았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들고 썩은 냄새가 없는 것이 좋다. 자연 상태에서는 10~24도, 씻은 상태에서는 5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

다진 마늘은 분말이 균일하고 마늘 특유의 노란빛이 나는 것을 선택해 냉동(영하 18도 이하) 또는 냉장(0~5도) 보관해야 한다. 소금은 손상된 용기에 담겨 있거나 곰팡이 등 이물질에 의해 본래의 색상을 잃은 것은 피해야 하며 15~25도의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손문기 과장은 "김치와 김치원료가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11월 말부터 10일간 김장 재료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지영 기자


동아DB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장용 배추를 고를 때 속이 꽉 차고 잎이 청결하며 단단한 느낌이 나는 것을 선택하도록 권하고 있다.



소설가 문순태 에세이

삶과 꿈이 흐르는 영산강으로

영산강은 전라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젖줄이다.
영산강을 지금 이대로 방치해두면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영산강을 살리는 일은 정치나 경제논리가 아닌 역사와 문화로 풀어야 한다.



전라도 사람의 몸속에는 영산강이 흐르고 있다. 우리에게 영산강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며 행복한 일인가. 갠지스가 인도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강'이 되고 있듯 영산강은 전라도 사람들에게 '희망의 강'인 것이다.

영산강은 전라도 사람들의 한과 희망을 안고 흐른다.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안고 흐른다. 어둠과 고난의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고통과 상처를 통해 도전과 의지를 배울 수 있었고 미래의 빛나는 꿈을 안겨주기도 했다.

그래서 영산강은 꺾일 줄 모르는 전라도의 힘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힘은 영산강 물줄기에 몸과 마음을 적시고 살아온 전라도 사람들의 삶을 굳건하게 지탱해주었다. 영산강과 함께 흘러온 전라도의 한(恨)은 좌절과 체념의 한숨이나, 패자의 넋두리가 아니라 삶의 의지력이고 생명력이며 빛나는 희망이다.

영산강은 강을 끼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산강에 삶의 둥지를 틀었다. 농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려갔다. 백제시대부터 양수척(揚水尺 · 후삼국으로부터 고려시대에 걸쳐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거나 강변에 몰려 고리를 만들어 사는 고리백정)의 생활 근거지이기도 했다. 강변에는 농민들 외에도 백정이나 그릇을 굽는 옹기장이 등 천민들이 집단을 이루었다. 강변에 천민집단부락 부곡(部曲)



이훈 제공

영산강은 다도해가 어우러져 고대부터
물길과 바닷길이 발달해 농경문화와 함께
해양문화가 꽃을 피웠다. 영산강과 다도해가 만나고
농경문화와 해양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권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 뱃길로 불교가 들어왔다.
영산강은 바닷길을 통해 들어온 문화를 수용하는
관문 역할을 해왔다.

이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강변 사람들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홍수와 가뭄과 싸워야 했다. 영산강은 나주까지 조수가 밀려오는 감조하천(感潮河川)으로 바닷물 재해가 많았고 홍수 피해도 컸다. 이 지역 주민들은 바닷물과 홍수 때문에 폐농을 하기 일쑤였고 목숨까지도 잃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좌절하지 않고 둑을 쌓아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했다. 생명의 원천이며 젖줄인 강물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지만 때로는 목숨을 걸고 강물과 싸워야만 했다. 그러나 강과 함께 살아온 이들은 영산강 때문에 절망하기보다는 인내와 도전과 용기로 희망을 안고 살았다. 그 희망은 강인한 힘이 되었다.

넓은 들판 · 풍부한 수량… 일대를 농경문화 중심지로

1976년 나주댐을 비롯하여 담양댐, 장성댐이 완공되고 1981년 삼호면과 나불리 사이에 영산강 하굿둑을 막은 후부터 가뭄과 홍수, 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댐이 생겨서 농업 근대화는 가져왔으나 많은 농민들이 고향을 잃고 도시빈민으로 전락했는가 하면 차츰 강이 죽어가기 시작했다. 영산강 하구언을 막을 때 우리 지역에서 축제를 열었다는 것은 수치이며 참으로 슬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병풍산 북쪽 계곡인 가마골 용소에서 발원한 영산강 물길은 인간이 만든 마을과 도시와 바둑판같은 들판을 거쳐 서해로 흐른다. 장장 1백36.66킬로미터에 유역 면적 3천3백71평방킬로미터다. 3백 리 호남벌을 관류하면서 나주평야, 송정 일대의 서석평야, 학교평야를 적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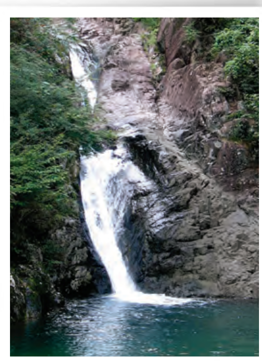
영산강 유역은 땅이 기름져 쌀농사 짓기에 적당하다. 영산강을 둘러싸고 펼쳐진 넓은 들판과 풍부한 수량, 따뜻한 기후 등 자연 지리적 조건은 이곳을 농경문화 중심지로 발달시켰다.

강은 강의 긴 세월만큼이나 다양한 인간들의 삶과 문화를 안고 있다. 자연이 만들어준 영산강 물굽이마다, 도시와 크고 작은 마을에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과 문화가 어우러져 있다. 이곳에는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아왔다. 영산강 유역에는 청동기시대 고인돌 2만여 기가 집중 분포되어 있어 우리 고대 역사의 의문을 푸는 열쇠를 쥐고 있다.

특히 나주 반남 고분군의 대형 옹관무덤에서 부장품 등을 통해 6백 년 마한의 고유문화가 꽃피운 고장임이 확인되었다. 무덤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마한 지배세력이 왕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한문화는 백제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영산강은 다도해가 어우러져 고대부터 물길과 바닷길이 발달해 농경문화와 함께 해양문화가 꽃을 피웠다. 영산강과 다도해가 만나고 농경문화와 해양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권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 뱃길로 불교가 들어왔다. 영산강은 바닷길을 통해 들어온 문화를 수용하는 관문 역할을 해왔다.

그런가 하면 왕건이 후백제를 아우르는 과정에서 군사적 근거지가 되기도 했다. 나주를 비롯한 호족 및 해상세력이 고려 건국에 기여를 한 것이다.



전라도의 젖줄,
영산강의 발원지
담양군 월산면 용소.

영산강이 관통하는 전라도는 역사 속에서 마한과 백제 멸망, 그리고 후백제 꿈의 좌절로 망국의 한이 서린 지역이기도 하다. 백제 멸망 후로 신라의 탄압과 끊임없는 백제 부흥운동 과정에서 저항정신이 싹트기도 했다. 후백제 견훤의 출현 이후, 민초들은



동학농민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영산강에서 민초들의 한은 판소리로 표출됐고,
선비들의 은일과 서정은 가사문학과 서화로 꽃을 피웠다. 사진은 장성 백양사.

새로운 미륵세상을 염원하였다. 운주사 천불천탑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과 열망이 컸던 지역 정서가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중앙과 멀리 떨어진 관계로 지배층의 수탈이 극심하여 민란이 자주 일어나기도 했다. 특히 정여립 사건 이후 인재등용마저 차단되다시피 하여 정치적으로 소외와 함께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동학농민혁명은 수탈을 참고 또 참아왔던 농민들이 끝내 생존을 위해 지배세력의 횡포에 맞선 항거였다. 영산강 지역은 동학농민혁명의 최후 보루였다. 지배세력의 핍탈에 이어 일제강점기 동안 영산강은 일제에 의한 수탈의 통로가 되었다.

민중지향적 정서로 찬란한 영산강문화 꽃피워

1897년 목포 개항 이후, 일제는 영산강을 통해 호남평야에서 생산되는 쌀과 면화 등 농산물을 대량 본토로 실어갔다. 이 과정에서 목포항에서는 부두근로자들의 쟁의가 잇따랐다. 특히 일제는 영산강 유역의 기름진 땅을 무제한으로 차지하여 지주가 되었고 땅을 잃은 농민들은 소작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나주 '궁삼면(宮三面) 농민운동' 사건은 소작인으로 전락한 농민들의 대표적인 농민투쟁이다. 동양척식회사는 나주 왕곡면 등 3개면 농민들이 흉년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여 궁토로 흡수된 토지를 모두 매입하였다. 이에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의 피나는 투쟁이 시작되었다. 나는 이 과정을 〈타오르는 강〉(1987년 창비 · 전 7권)이라는 소설로 형상화했다. 1886년 노비 세습제가 풀리자 이 지역의 많은 노비들은 영산강변으로 몰려 제방을 쌓고 홍수로 버려진 땅을 일구어 삶의 터전으로 만들었는데, 이 땅이 모두 동척 소유가 되자 일제에 항거하여 투쟁에 나섰다.

이처럼 영산강 지역 농민들의 식민지 수탈에 항거해온 민족 민중정신은 의병전쟁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씨앗이 되었고 5 · 18 광주항쟁으로 이어진다. 한편 영산강은 전라도 개화의 통로였고 근대 변혁의 물살 역할을 해오기도 했다.

이 같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민중 지향적 정서는 정치적 탄압과 소외 속에서도 찬란한 영산강문화를 꽃피웠다. 소외당하고 빼앗기고 짓밟힘을 당해온 민초들의 점액질 한은 판소리로 표출되었고 선비들의 은일과 서정은 가사문학과 서화를 발전시켰다. 영산강을 소재로 많은 문학작품도 창작되었다.

조선시대 최고의 풍류시인 임제의 시작품을 비롯하여 일제강점기 영산강 지역 농민들의 고단한 삶을 그린 박화성의 〈한귀〉 〈홍수전야〉, 오유권의 〈방앗골 혁명〉, 제 졸작인 〈타오르는 강〉 외에 허연, 승지행, 김해성, 나해철, 이상문 등 영산강 주변에서 태어난 문인들이 영산강을 소재로 많은 작품을 남겼다.

영산강은 고대부터 한반도 내륙과 연안을 잇는 교통로로 중국, 일본과의 교류 관문이기도 했다. 고려 때까지만 해도 영산포에는 조창(漕倉)이 있어 전라도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세곡들을 뱃길을 이용해 경창(京倉)으로 옮겨갔다.

영산강 주운은 하구에서 74킬로미터 상류에 위치한 광주 광산구 서창까지 가능했다. 가항종점 영산포에는 8 · 15 직후까지



뱃길 복원, 5일장 복원 등 죽어가는
영산강과 문화를 살리는 작업이 시작됐다.

강의 흐름과 인간의 삶은 닮아 있는 것 같다. 강이 흐름을 멈추지 않듯
인간도 생과 사의 사이클이 끝없이 진행된다.
우리가 죽은 다음 우리 후손들은 영산강과 함께 흐를 것이다.

만 해도 20, 30톤급 어선이 40~50여 척이 정박해 있어 성시를 이루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목포에서 영산포까지 뱃길 48킬로미터 뱃길 운항이 비교적 활발했다. 이때는 백하와 황석어 등 해산물을 실은 배들이 들어와 나주평야의 쌀을 실어갔다. 영산포를 근거지로 해운수송이 활발했으며 나주, 영암, 무안, 신안 사람들이 영산포와 연결된 뱃길을 이용해 장사를 했다. 영산강 뱃길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1897년 목포 개항과 1912년 국도 1호선 개통, 1913년 호남선 개통 후부터다.

그러나 철도와 자동차도로가 개통되면서 점차 뱃길이 한산해졌다. 뱃길이 끊기면서 나루가 없어졌고 강과 사람의 교섭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1977년 전후로 목포~영산포 간 배의 왕래가 끊겼다.

뱃길이 끊기고 다양한 교통수단의 등장과 함께 다리가 놓여 강의 이쪽과 저쪽의 교통이 원활해지면서부터 나루터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 이와 함께 나루터 장시의 경제가 쇠퇴하고 강과 인간의 교섭이 단절되고 말았다.

뱃길이 활발했을 때 목포와 영산포 사이에는 5, 10리마다 크고 작은 나루 40여 개가 있었다. 이들 나루는 70년대까지만 해도 명맥을 이어왔으나 지금은 거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영산강과 사람의 교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나루의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뱃길이 복원된다면 나루터문화의 복원과 경제적 기능을 회복해 사람들을 강으로 불러들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산강 유역권에 속한 지역의 5일장을 강변으로 이전하고 이미 폐쇄된 5일장도 살려야 한다. 이와 함께 인접지역 자치단체의 문화시설도 강변으로 옮겨 둔치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는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영산강 개발은 물속과 물 밖을 동시에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 영산강을 이대로 방치해둔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영산강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책임이다. 영산강을 살리는 일은 정치나 경제논리로 풀어서는 안 된다. 역사와 문화로 풀어야 한다. 문화의 힘은 정치와 경제를 아우를 수 있고 시공을 초월해서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영산강에는 마한, 백제, 고려문화의 유산이 많고 동학농민운동의 역사적 현장이며 개화문물의 유입로이자 일제강점기에는 수탈의 통로가 되기도 했다. 문학 유산도 풍부하다. 지금 전국에서 영산강 문학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표지판 하나 없다. 뱃길관광이 무형적 자산이라면 문화유산은 그 실체를 보여줄 수가 있지 않겠는가.

얼마 전 팀 볼러 작 〈리버 보이〉라는 소설이 소개되었다. 흘러가는 강과 인간의 삶을 이야기한 소설이다. 강이 바다로 흘러가기 위해 거치는 여정을 인간의 삶에 적절히 대입시켜 인간과 강을 하나로 엮어가고 있다. 강이 흘러가는 과정을 인간의 삶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인상적인 대화가 있다. '아름답지 않은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이다' 라는 말이다.

정치논리 아닌 역사와 문화로 영산강 살리기에 나서야

강의 흐름과 인간의 삶은 닮아 있는 것 같다. 강이 흐름을 멈추지 않듯 인간도 생과 사의 사이클이 끝없이 진행된다. 우리가 죽은 다음 우리 후손들은 영산강과 함께 흐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영산강은 죽어가는 과정이기에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다. 나는 지금 영산강변에 아름다운 숲과 꽃길, 음악당과 미술관, 문학관이 들어서고 강변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날을 상상해본다. 가족들과 함께 강변을 거닐고 장을 보고 미술전을 구경하고 음악과 시낭송을 감상하는 장면을 떠올려보기도 한다. 전라도에 영산강 르네상스가 꽃피우는 시절을 생각한다.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입장에서 영산강을 보지 말고 한번쯤 강이 되어서 영산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강이 되어 영산강을 본다면 엄숙해지고 경건해지고 사랑스러워질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강의 입장이라면 사람에게 무엇을 원할까. 사람이 강을 보호하는 것일까, 강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일까.

이제부터는 영산강의 인문학적 가치와 비전을 말할 때다. 이 시대의 중심적 화두는 강을 통해 삶의 가치를 인식하고 배우는 일이다. 노령산맥이 전라도의 등뼈라면 영산강은 핏줄이며 강 주변의 숲들은 폐이고 바람은 숨결이다. 전라도의 핏줄인 영산강이 건강하게 흐를 때 우리의 삶도 행복할 수 있다.

이제 강의 흐름에서 느리게 사는 법을 깨달을 때다. 삶과 사랑과 꿈과 그리움이 흐르는 영산강을 꿈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강과 인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곧 우리의 희망이며 평화가 아니겠는가. G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 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사업'을 국내외에 적극 알림으로써 농어촌 영어격차 해소 등 좋은 성과를 올려 한국PR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이 사업이 진행된 강원 홍천군 오안초등학교.

"농산어촌 영어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

한국PR대상 수상한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사업'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홍보를 가장 잘한 단체에 주는 '2009 한국PR대상'을 수상해 화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 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TaLK) 사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에서 두각을 나타내 영예의 대상을 안았다.

한국PR협회가 주관하는 2009년 한국PR대상 공모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PR대상을 수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월 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PR대상 시상식에서 '정부 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TaLK · Teach and Learn in Korea) 사업'의 국내외 홍보로 좋은 성과를 올린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TaLK 사업은 지난해부터 재외동포와 외국인 대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초청해 농산어촌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함으로써 도시와의 영어 격차를 해소하고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이들을 미래 친한(親韓) · 지한(知韓) 인재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상별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현지의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통해 사업을 홍보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우수 사례가 각종 언론에 1백여 회 이상 소개됐다.

이러한 적극적인 홍보 결과 지난해 9월 3백80명이었던 장학생이 올해 9월에는 5백43명으로 늘어 농산어촌 지역의 영어 교육격차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지역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장학생들의 만족도도 87.3퍼센트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 정일용 미래인재정책관은 "우리 부에 PR대상이라는 큰 상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겠다"며 "앞으로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 교육정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감으로써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대상별 홍보전략 · 현지 매체 등에 적극적 홍보 주효

이날 시상식에서 '올해의 PR인상'은 SK브랜드관리부문장인 권오용 부사장에게 돌아갔다. 부문별 우수상은 우정사업본부(이미지PR), 북부지방산림청(정부PR), 서울대병원 · 한국노바티스(공공문제PR), 이천시청(마케팅PR), 한국국방연구원(사내커뮤니케이션), 금호타이어(스포츠마케팅PR), 서울시(온라인PR), 해태제과식품(위기관리PR), 금호건설(지역사회관계)이 받았다.

시상식에 앞서 열린 한국PR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정상국 한국PR협회장은 "지난 20년간 한국PR협회가 우리나라 PR산업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PR활동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한국PR협회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소통과 공감 등 PR활동이 지닌 여러 가지 의미를 더 많은 국민과 나누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해형 한국PR협회 초대 회장, 이순동 전임 회장 등 협회 회장단을 비롯한 관계자 등 2백50여 명이 참석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있는 그대로

글과 그림 · 최영순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 도스토예프스키(러시아 소설가)



동아DB

2009 투르 드 서울 국제사이클대회에서 우승한 조호성(가운데)이 2위 디르크 뮐러(왼쪽), 3위 그리샤 야노르슈케(이상 독일)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

투르 드 서울 국제사이클대회 우승 조호성
"내 꿈은 올림픽 금빛 페달"

2009 투르 드 서울 국제사이클대회 우승자인 조호성은 프로에서 아마추어로 귀환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경륜 상금왕의 유혹을 뿌리치고, 부상을 딛고 일어선 그는 쟁쟁한 외국 선수들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조호성(35), 그는 '황제'였다. 적수가 없었다. 2004년 경륜에 입문한 뒤 지난해까지 5년간 상금왕을 네 번이나 차지했다. 그랑프리 우승도 세 번 했다. 매년 상금으로만 2억원 이상을 벌었고, 어떤 해는 수입이 2억6천만원에 이르기도 했다. 경륜장을 누비는 한 부와 명예는 계속될 터였다.

하지만 지난해 말 어느 날, 그는 가족회의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아마추어 사이클 선수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었다. 한국 사이클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올림픽 메달을 따는 게 그의 꿈이었다.

가족들은 그의 결정을 존중했다. 아내 황원경(29) 씨는 "꿈없이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격려해줬다. 황제 자리를 박차고 나온 그는 올해 초 아마추어 팀인 서울시청 사이클 선수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출발은 순탄치 않았다. 아마추어 복귀 후 첫 대회였던 지난 3월 투르 드 타이완. 정상이 아닌 몸으로 욕심을 부린 게 화근이었다. 대회 5일째 내리막길에서 그는 힘껏 페달을 밟다가 중심을 잃어버렸다. 자전거는 가드레일을 받은 뒤 5미터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목뼈 3~5번 골절.

정신을 차려 보니 타이베이시 인근의 한 병원이었다. 몸을 움직여보려 했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끝나는 구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하늘이 그를 도왔다. 담당 의사는 "당신은 정말 럭키

가이(Lucky Guy)"라고 했다. 열흘 정도 지나자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당장 운동을 시작했다. 병원 한쪽에 마련한 연습실에서 목 부위를 고정시킨 채 부지런히 다리 운동을 했다. 하루를 쉬면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2, 3일을 노력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고 이후 조호성은 새 삶을 얻은 기분이었다. '1등'의 강박관념은 사라졌다. 세상을 보는 눈도 여유로워졌다. 그는 "그날 이후 허벅지가 찢어지고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스러운 훈련도 즐거워졌다. 자전거 위에 앉을 수 있다는 자체로 행복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는 자전거의 본고장인 프랑스로 건너가 재활을 겸해 훈련에 매진했다. 체중 감량이 가장 큰 숙제였다. 예전 사이클 선수였을 때 그의 적정 몸무게는 70킬로그램 정도. 하지만 순간 스피드가 필요한 경륜으로 전향하면서 몸무게를 85킬로그램까지 불렸다. 이제 다시 15킬로그램을 빼야 했다.

억대 상금 버리고 아마추어 전향… 가족 성원 큰 힘

육상으로 치면 중·장거리인 사이클은 마라톤에, 단거리인 경륜은 1백 미터 달리기에 비견될 수 있다. 조호성의 도전은 마라토너가 1백 미터 선수로 변신해 성공을 거둔 뒤 다시 마라토너로 변신하는 과정이다. 그는 4개월여 만에 성공적으로 사이클 선수로 돌아올 수 있었다. 무엇보다 '즐기면서 자전거를 탔기 때문'이었다. 복귀 무대는 지난 10월 열린 전국체전이었다. 남자 일반부 개인도로에서 금메달과 45킬로미터 도로 독주 은메달. 자신감이 더욱 붙었다.

그리고 국제대회 복귀 무대였던 11월 8일의 2009 투르 드 서울 국제사이클대회. 그는 이 대회에서 우승을 다짐했다. 20년 넘게 사이클을 타면서 그는 서울 도심을 시원하게 달려본 적이 없다. 더욱이 국내에서 열리는 첫 국제 사이클 대회가 아닌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외국 선수들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았다.

선두 그룹에서 달리던 그는 결승선을 2킬로미터 앞두고 질주를 시작했다. 페달에 온몸의 힘을 실었다. 앞서가던 독일 선수 2명을 단숨에 제치고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해 1백.5킬로미터를 2시간 15분 5초에 끊었다. 경륜 시절 수없이 했던 1등이었지만 "마침내 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가 꿈꾸는 올림픽 메달을 향한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운 셈. 하지만 비관적인 목소리도 있다. 9년 전 시드니올림픽 포인트레이스(트랙에서 몇 바퀴를 돌 때마다 순위를 매겨 총점으로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경주)에서 그는 단 1점이 모자라 4위를 했다. "한창 때도 안 됐는데 30대 중반의 나이에 과연 되겠느냐"는 것이다.

타이완 경기서 큰 사고 후 '즐기면서' 자전거 타게 돼

그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오기가 생긴다"고 했다. 그가 다시 아마추어로 복귀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해 열린 베이징올림픽이다. 이 대회 포인트레이스 금메달리스트는 후안 라네라스(스페인). 당시 39세였다. 더구나 라네라스는 시드니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땄던 선수다. 런던올림픽이 열리는 2012년이면 조호성의 나이는 38세다. 그는 "나도 할 수 있다. 아니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다"고 했다.

그의 롤 모델은 수영의 박태환과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다. 그들이 없었더라면 수영과 피겨는 지금의 사이클처럼 여전히 비인기 종목이었을지도 모른다. 조호성은 "수영이나 피겨스케이팅처럼 사이클이 국민에게 힘을 주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도록 하는 게 꿈"이라고 말한다.

투르 드 서울의 우승이 기뻤던 것도 같은 이유다. 그는 "서울 도심 한복판을 달리는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하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외국 선수들이 한국을 찾을 것이다. 그러면 대회 수준이 올라가고, 수준이 높아지면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된다"고 했다.

조호성은 "요즘 우리나라에 자전거 열풍이 불고 있지만 대부분 동호인이 대상이다. 엘리트 사이클도 함께 발전해야 진정한 자전거 강국이 될 수 있다"며 "미약한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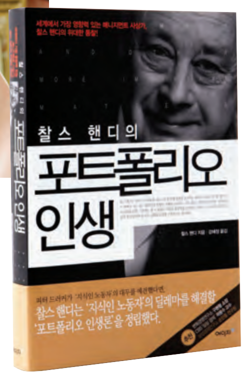
글 · 이헌재(동아일보 스포츠레저부 기자)


동아DB

국내 첫 국제사이클대회인 2009 투르 드 서울 국제사이클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비 오는 서울 도심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공병호 박사는 찰스 핸디의 삶의 지혜가 담긴 책을 통해 “10년, 20년 후의 나의 모습을 준비하며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1인 기업가’ 공병호 박사가 추천하는 〈포트폴리오 인생〉

가장 만족스러울 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뒤돌아봐라

내일 당장 자신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미래의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 인생에 대한 체계적인 포트폴리오를 쌓을 때 우리는 지도 없이 머나먼 길을 떠나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

“이제껏 살아온 삶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20대에도, 30대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항상 준비하고 도전하는 자세로 삶을 마주하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이룬 것들에 대해 안주하거나 자만하게 되면 먼 미래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1인 기업가’로 알려진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공병호(48) 박사는 이제껏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해 “당당하다”고 말한다. 지금은 연구, 강연, 저술 등의 활동으로 1년 3백65일을 바쁘게 살지만 그는 한때 연구원, 기업체 CEO 등 여러 일을 거치면서 변화를 꿈꾸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왔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책이 있었다. 끊임없이 책을 읽으며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왔던 것이다.

그래서일까. 그가 연구실로 쓰는 아파트는 수많은 책들로 가득했다. 1만 권은 족히 넘어 보였다. 특히 복도와 거실 곳곳에 책꽂이를 세워 책을 종류별로 깔끔하게 분류해둬 작은 도서관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평소 수많은 책을 읽어온 그에게 몇 번을 곱씹어 읽어도 좋은 책을 묻자 단박에 찰스 핸디의 〈포트폴리오 인생〉을 꼽았다.

“직업, 죽음 등 인생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일종의 컨설팅 책입니다. 피터 드러커처럼 유명한 매니지먼트 사상가인 찰스 핸디가 일흔이 넘은 나이에 이제껏 살아온 삶을 노년의 지혜로 승화시켜 보여줘 자아의 정체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게 만들죠.”

찰스 핸디는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잔잔하게 일깨워준다. 그는 한때 잘나가던 석유 회사의 간부였고 런던경영대학원의 교수가 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직함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자신만의 ‘포트폴리오 인생’으로 뛰어들어갔다. 어떤 일이든 평생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뿐더러 사람은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서 예기치 못한 미래를 만나기 때문이다.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찰스 핸디는 스스로가 인생을 경영하는 포트폴리오 인생을 통해 단기적인 업무와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나만의 특별한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공 박사 역시 “아무리 현재의 자신이 잘되고 있을지라도 안주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책 8장에 보면 역S자 커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장 좋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때 오히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얘기죠. 사실 이때 뒤돌아보며 반성하고 앞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고민하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면 자신의 경력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결국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 됩니다.”

공 박사는 자서전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자신이 살아보지 못한 다양한 인생을 대신 경험할 수 있어서다. 그는 “찰스 핸디의 삶을 통해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 책이 사람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내비게이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장원급제 동기 '시소' 행보



일러스트 · 이우정

임금의 사랑을 받다가도 효를 위해 관직에서 물러난 어변갑(魚變甲)이 문과 장원을 차지했던 태종 8년(1408년) 무자 식년방에 나란히 급제한 두 인물이 있다. 신인손(辛引孫 · 1384~1445)과 우승범(禹承範 · ?~1438)이다. 두 사람 모두 관리생활의 대부분을 인재를 잘 썼던 세종 밑에서 보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행로 비교는 오늘날에도 많은 참고가 된다.

둘은 모두 막강한 집안 배경을 갖고 있었다. 신인손은 태종의 총애를 받았던 신유정(辛有定)의 아들이었고, 우승범은 태종의 스승이나 다름없던 고려 말 우현보(禹玄寶)의 손자였다. 차이가 있다면 신인손이 아버지의 배경이 곧바로 큰 힘이 된 반면, 우승범에겐 정도전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버지 우홍수(禹洪壽)의 신원(伸寃)이라는 개인적 문제가 있었다.

일단 초급관리 시절 관운은 신인손 쪽에 있었다. 신인손은 춘추관 사관으로 출발해 1413년에는 승정원 주서정(7품)이 되어 대군들에게 경사(經史)를 강의했다. 대군들이란 세자 양녕을 제외한 효령, 충녕(훗날의 세종), 성녕 등을 말한다. 세종과는 이렇게 일찍 인연을 맺었던 것이다.

반면 우승범은 운도 따르지 않았지만 일처리에 있어 잔 실수가 잦았다. 문과 급제 이듬해인 1409년 7월 예문관 검열(정9품)로 근무하던 중 태종이 올릴 기청제(祈晴祭) 때 사용할 제문(祭文)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 4일 동안 옥에 갇힌다. 1417년에는 이조 정랑(정5품)으로 있던 우승범이 이미 양녕의 음행과 관련해 주륙을 당한 구종지 등의 이름을 어람관안(御覽官案 · 임금이 보던 관리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은 죄로 의금부에 투옥된다. 게다가 세자의 학문연마를 책임지던 서연(書筵)의 관직까지 겸하고 있던 터라 우승범은 1418년 6월 양녕이 폐세자될 때 파직당한다.

세종 6년(1424년) 신인손은 오늘날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의정부 사인(정4품)에까지 올라 있다. 반면 1419년(세종 1년) '외척 제거'라는 구상에 따라 태종이 세종의 장인 심온을 제거할 때 심온과 함께 명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우승범도 함께 죄를 받아 파면당했다.

그가 세종으로부터 다시 부름을 받는 것은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세종 8년(1426년) 9월의 일이다. 사헌부 집의(정3품)였다. 총애를 받던 신인손이 집의에 오른 때가 2년 후인 세종 10년 10월이었으니 단숨에 역전된 것이다. 장인 심온의 억울함을 세종은 이렇게 풀어주려 했는지 모른다.

실수 잦았던 우승범, 파직됐다 복직… 판서까지 못 가

이후 신인손은 세종 12년 예문관 직제학(정3품 당하관), 세종 14년 7월 사간원 좌사간(종3품)을 거쳐 같은 해 12월 8일 공조 우참의(정3품 당상관)에 제수된다. 그런데 같은 날 우승범은 이조 우참판(종2품)에 제수됐다. 여전히 우승범이 한 발 앞섰다.

이듬해 초 신인손이 경상도 관찰사로 나가 뛰어난 이재(吏才)를 발휘해 백성의 삶을 안정시켜 세종의 큰 신임을 얻는다. 세종이 황희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 것도 황희가 강원도 관찰사로 나가 가뭄문제를 잘 해결한 때문이었다.

세종 16년 병조참의로 중앙에 복귀한 신인손은 그해 8월 승정원 우승지로 세종을 가까이에서 보필하게 되고 좌승지를 거쳐 이듬해(세종 17년) 3월 도승지에 오른다. 이후 세종 20년(1438년) 병조참판(종2품)으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3년간 신인손은 세종의 혀가 되어 국가 중대사를 매끄럽게 처리했다는 평을 들었다.

한편 우승범은 이미 신인손보다 6년 빠른 세종 14년(1432년) 1월 병조참판에 제수됐고 같은 해 12월 이조 우참판으로 자리를 옮긴다. 부서를 돌며 참판만 했던 셈이다. 결국 판서직에는 오르지 못하고 세종 20년 10월 과음(過飮)으로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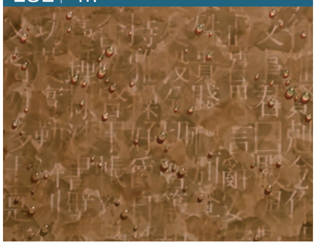
반면 신인손은 병조참판으로 오랫동안 김종서, 황보인 등과 함께 세종의 북방 개척을 실무적으로 도왔고 세종 26년 마침내 형조판서에 오른다. 두 사람을 통해 세종의 양재(養才)와 용인(用人)을 볼 수 있다. G

기무사 터에 '예술 신호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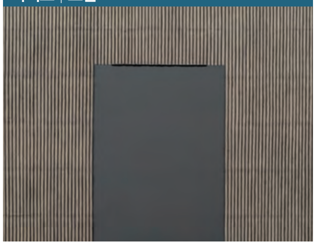
58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기획전시 '신호탄'

일시	월~목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금~일요일 오전 10시~오후 9시 12월 6일(일)까지 평일 8시, 주말 3시, 7시(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예정지(옛 국군기무사령부 부지)
관람료	무료
문의	02-2188-6000 seoul.moc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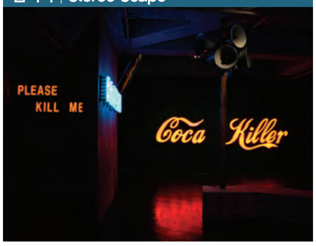
김창열 | 회귀



박서보 | 묘법



김기라 | Stereo Scape



최수앙 | The Wing



서울 소격동 옛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부지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마련한 '신호탄'전이 열리고 있다. '미술관 프로젝트' '공간 변형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순수미술가를 비롯해 건축가, 디자이너, 공예가, 영화감독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 58명이 참여해 세대를 초월한 조화를 이뤄내고 있다.

우선 미술관 프로젝트는 올해로 개관 40주년을 맞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을 활용한 전시다. 작가들로 하여금 미술관 소장품을 선정하게 한 후 그 작품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작업을 진행토록 한 점이 이색적이다.

작업은 각기 선정한 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자유로운 느낌을 표현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서보(회화), 심문섭(조각), 전수천(설치), 강홍구(사진), 유근택(동양화, 애니메이션), 김수정(디자인), 문훈(건축) 등의 작가가 참여한 이 프로젝트에는 현대미술의 다양한 기법과 제작 방식이 대거 동원됐다.

안규철, 최정화, 임옥상, 최우람 등이 참여한 공간 변형 프로젝트는 기무사 부지가 미술관으로 거듭날 것임을 알리고 있다.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에는 영상작가 문경원과 실험영화 감독 박동현이 참여해 기무사라는 공간이 우리 기억 속에 남겨놓은 이미지를 되돌아보고 그것을 영상작품으로 풀어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기혜경 학예사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세워지기까지 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던 것처럼 서울관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문화인의 몫에 달렸다"며 "문화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전시 기간에는 국악 관현악 공연, 창작 국악 공연 등의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전시 설명회는 평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2시간 간격으로 진행된다. G

글 · 김지영 기자

오페라 '돈 조반니'

일시	11월 21일(토)~23일(월) 토요일 오후 2시, 7시 30분, 일·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관람료	VIP석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02-961-0573 www.sac.or.kr



다 폰테의 빼어난 묘사와 플롯, 모차르트의 위대한 음악이 결합해 탄생된 오페라 '돈 조반니'는 희극과 비극의 요소를 두루 갖춘 작품이다. 인간의 끝없는 성적 욕망과 얄팍함, 간교함, 불완전함을 그려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해학과 관용이 자리하고 있어 가장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오페라로 손꼽힌다. 경희대 음악대학이 선보이는 이번 '돈 조반니'는 섬세한 심리묘사와 무게감 있는 음악으로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극 '춘향연가'

일시	11월 26일(목)~29일(일) 목·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4시, 8시, 일요일 오후 4시
장소	서울 명동예술극장
관람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1644-2003 www.mct.or.kr



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사당패의 판굿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원굿 사이에 펼쳐지는 이몽룡, 성춘향, 변학도의 사랑 이야기. 극의 흐름이나 인물의 캐릭터는 고전 춘향전 그대로다. 이몽룡과 사랑을 나눈 춘향은 변학도의 숱한 구애를 뿌리치고 끝까지 절개를 지키고, 과거시험에서 장원급제한 이몽룡은 마패를 들고 나타나 위기의 순간에 춘향을 구한다. 작품은 재회의 기쁨을 나눈 두 사람의 전통혼례가 치러지는 가운데 사물놀이로 마지막을 장식한다.


Korea
2010-2012
VISIT KOREA YEAR
Visit Seoul 2010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 배용준
2010-2012년은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당신의 미소로 한국을 선물하세요.
한국을 찾는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당신의 미소를 선물하세요.
따뜻한 미소를 먼저 건네는 당신이 바로
대한민국 미소 국가대표 입니다.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VISIT KOREA COMMITTEE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신종플루로 헌혈자가 감소하여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병원에서는 1분에 8개, 1시간에 469개, 하루 11,267개의 혈액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헌혈시 신종플루 감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헌혈! 헌혈은 생명을 보듬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대한적십자사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D CROSS